朝鮮日報

社說

英米兩海軍國의 建艦競爭猛烈化
大西洋에서 太平洋에
英國의 戰略單位轉換

【東京電話】四日 倫敦으로부터 當局에 到達한 情報에 依하면 十六億의 巨費를 投하야 實現될 米國의 百二隻大建艦案은 世界의 海軍國特히 英國의 神經을 刺戟하야 英國은 太平洋上에 잇서서 濠洲艦隊의 增成을 圖하야 大平洋上의 米海軍에 備하려 하고 濠洲의 陸海空軍에 對하야 如左한 擴張計劃을 樹立하였다

一、간나級巡洋艦 四隻의 新艦建造를 씨드니 工廠에서 起工할 것
二、驅逐隊는 英本國에서 增大키로 되여 이미 英本國에 派遣委員을 派遣하였다
三、潛水隊의 增成
四、飛機水雷與飛艇의 增成
五、數年前來計劃하고 잇든 자피

△海軍兵學校의 設置

海軍兵力을 擴張하는 同時에 陸軍은 國民軍二萬五千의 增成과 兵器의 新銳化 시드니、뉴캐슬、프리만틀等에 海軍防備砲의 設置 空軍에서는 爆擊機十八機를 整備키로 되였다 玆에 英國은 今年비토리아 百年祭를 機로 하야 濠洲及新嘉坡軍港을 戰略의 單位로 하고 濠洲、뉴질란드 英本國東洋艦隊의 三隊를 聯合하야 太平洋上에서 攻防大演習을 實施키로 되바 總指揮官에 코크렌少將이 任命되였다 그리하야 世界의 海軍國이 되려고 自認하든 英米兩海軍國은 大西洋을 버리고 太平洋에서 暗默의 競爭을 開始하였다 華盛頓倫敦兩條約의 改訂期인 一九三五年을 압두고 이 兩大國의 爭覇는 어데까지 進展될는지 日本海軍은 其推移에 多大한 關心을 가지고 잇다

米國軍事豫算
今明年에 만 十億五千萬弗
特別히 空軍充實에 置重

【聯合위싱톤四日發】루즈벨트大統領의 豫算敎書에 依한 陸海軍豫算及從來의 未支出豫算을 合計하면 一九三四、五年度의 米國의 國防豫算은 左와 如하다

陸軍豫算
一九三四年度 三九〇、一四八、八〇〇弗
一九三五年度 二八〇、四四四、八〇〇弗

海軍豫算
一九三四年度 六六二、二五六、三〇〇弗
一九三五年度 二八〇、一八〇、三〇〇弗

特히 空軍充實을 爲하야 公共事業資金中에서 七百五十萬弗을 支出하기로 되엿는데 右豫算의 使途에 就하야 陸軍長官은 다음과 가티 言明하였다 公共事業資金中空軍充實의 目的으로 支出되는 金額은 爆擊機三十六臺 追擊機三十臺 攻擊機二十四臺를 建造할 것이다

日印會商大團圓
新條約案의 重要骨子

【聯合델리四日發】前後四個月끄러오든 日印會商도 幾多의 迂餘曲折을 經하야 드듸여 이에 大團圓을 告하게 되여 五日正午부터 印度政廳商務省會議室에서 日印兩國代表出席下에 最終的本會議를 開하기로 決定하얏다

一九三三年四月十日부터 特別通商條約의 廢棄通告에 端을 發하야 六月七日 一九三〇年綿業保護法에 依하야 印度政廳은 綿布關稅를 引上하야 日本側은 上海海關에 依하야 印棉不買를 決議하야 兩國은 이에 國際經濟關係에 重大한 事態를 惹起하야 物物交換制度及輸出統制制度等을 基調로 한 會商을 開하기로 되야 正式으로 確認하고 起草委員會를 任命하야 六月부터 日印新通商條約草案의 起草에 着手하려로 되엿다 [illegible]

大使第一書記官 松島鹿夫
外務事務官 吉田 寬
領事館補 小瀧 彬

新條約案의 骨子는 次와 如하다

第一項 最惠國待遇條項
第二項 一般的關稅率改正에 對하야 行할 協議에 關한 條項 將來印度政廳이 綿絲布關稅를 引上키 때문에 通商上障碍를 及할 境遇에 日本政府는 抗議를 提出할 수 잇게 되엿는데 本條項은 이 點에 關한 規定을 規定한 것
第三項 補償條項
第四項 綿布關稅率에 關한 各項
第五項 綿布輸出配定에 關한 條項
第六項 緬甸分離에 關한 條項 印度新憲法이 成立한 後 緬甸을 分離하는 境遇에도 新通商條約의 効力을 及할 것으로 함
第七項 八日부터 實施되는 綿絲布 棉花에 關한 新條項
第八項 新條約의 有効期間에 關한 條項은 一九三七年三月까지 有効로 함

以上과 가티 綿貨에 關하야는 特히 規定이 업다 代表間에는 以上 八項目으로 充分하다는 見解를 가지고 잇다 그리고 日印新通商條約이 事實的으로 成立한 以上 되도록 速히 經濟上의 [illegible] 實行하게로 決定하얏다

正式決定된 日本綿布配定量

第七項의 要旨는 如左하다
一、日本紡績聯合會는 印棉不買를 撤回함
二、印度政廳은 綿布關稅를 五割又는 平織生地一封度에 對하야 五안나 十四分의 三으로 引下
三、綿布輸出配定制를 開始함

以上三項目의 實施期日은 八日로 決定하고 議事錄에 期日을 宣言하기로 되엿다 그리고 八日以前에 日本부터 船積된 綿布도 新關稅率을 適用하게 되엿다

【東京델리四日發】日本綿布割當의 實施期日되는 四月前에 一、二、三의 四個月間의 綿布輸入數量에 對하야는 印度側으로부터 昨年一月以降十二月에 이르기까지 一個年에 買入한 棉花를 基準으로 割當할 것을 提示하여 오바 三日 專門委員會에서 左와 如히 正式으로 決定하얏다 即 昨年一月부터 八月에 이르기까지 [illegible] 二萬八千俵로 九月以降十二月에 이르기까지도 契約이 잇는 一萬俵가 積出되지 못할 것으로 結局一年間에는 一日二十三萬八千俵가 되여 잇고 그리고 이 數字를 基準으로 한 綿布의 數量은 三億四千五百七十萬碼의 四分之一 [illegible] 個月間의 綿布輸入數量으로 될 터이다 그리고 最初에는 完全한 統制를 希望할 수 업슴으로 一月부터 九月에 이르기까지 九個月間을 一個의 特殊期間으로 보아 最高約四億碼의 半分二億碼에 上記三個月間의 八千六百四十萬碼를 加한 二億八千六百四十萬碼를 品種別이 適用될 터로 되엿고 그 第一期는 次期에 對한 一割의 繰越을 承認게 안키로 決定하엿다

루매니아 後繼內閣
타다레스큐氏組閣

【東京電話】부하레스트三日發 [illegible] 타다레스큐氏가 今日組閣을 完了하엿다

獨逸의 軍備均等權
形式上으로 認定
微妙한 四國關係새로히 展開
무氏英外相會見內容

【羅馬特電四日發】羅馬訪問의 사이먼英外相은 뭇소리니伊首相과 軍縮問題를 中心으로 歐洲一般政局問題에 就하야 懇談을 遂하였는대 그 內容에 關하야 信할만한 側으로 聞知하면 뭇소리니首相은

一、獨逸의 軍備均等要求는 形式上만이라도 認定하여야 할 必要가 잇다
一、此際軍縮은 一定制限을 附하야 그 範圍內에서 許容하는데 힛틀러獨首相의 國內關係로 보드래도 受諾하리라고 信한다
一、萬若獨逸의 要求를 關係諸國에서 一蹴한다 하면 態度에 나간다면 一歩도 업시 도로혀 國際政局을 不安식힐 뿐이다
一、軍縮問題를 이와 가튼 方法으로 一段落을 告케 하고 또 聯盟改組에 着手하야써 本會見의 面目을 세우고 또 斷然으로 하여금 有効適切한 解決의 發揮를 促進하여야 한다는 意見을 사이먼外相에 對하야 力說하엿는데 此에 對하야 사이먼外相은 今後如何한 態度에 出하드래도 困境에 잇는 狀態에 잇는 獨佛間의 意見疏通을 圖할 것이라고 答하야 前에 英、佛、伊、獨四國間의 微妙한 關係는 更히 一層 [illegible] 方面으로써 注目을 끄을고 잇다

米海軍機
桑港과 布哇間을 無着水編隊飛行

【東京華盛頓三日發】米國海軍軍令部長 스탄드레ー大將은 米國海軍航空隊의 桑港布哇間無着水編隊飛行에 關하야 左와 如히 發表하얏다 米國航空隊附屬海軍機六機는 一月九日桑港發布哇間의 無着水編隊飛行을 決行키로 되엿다

人事·集會

▲李季昉氏(普成高普敎員)一月三日 忠南唐津郡合德面 [illegible]元里本宅에서 遭外艱
▲金東進氏(本社東京支局長)日前歸社 茶屋町明東호텔에 投宿中
▲金光洙氏(本社大阪支局長)同上

八面鋒

新年劈頭의 世界政治工作을 一瞥하여 볼가。
◇米國서는、外交政策協會가、一日에、比島의 永久中立案을 大統領에게 提出。
◇英國은 外務次官 이든大佐를 國際聯盟書記로 삼아、極東說法師로 보낼 計劃。
◇印度와 日本사이에는、棉白花五十萬俵와 綿布四億碼로、關稅障壁과 不買同盟을 撤廢。
◇東京서는、日米實業家가 日米關係調査會를 만들어 平和工作을 準備。
◇中國서는、南京、福建의 戰爭이 繼續됨은 勿論、滿政府의 改造工作에 陣痛이 激甚。
◇그런데、그런데、朝鮮서는 무얼하고잇는가。

中央軍의 陸戰隊
福建軍의 後方攪亂코
包圍攻擊戰을 開始

【東京上海四日發】隨季瓦이 引率한 第一艦隊는 이미 三都澳에 到着하야 海岸線으로부터 十九路軍의 北上하는 側面을 衝키 爲하야 陸戰隊一旅를 白犬飛鸞에 上陸식혓다 이 때문에 福建軍은 東西로부터 攻擊을 밧고 잇다

【東京上海四日發】當地外人側消息에 依하면 國民政府海軍陸戰隊는 泉州(廈門、福州間)海港을 四日에 占領하엿다 右는 十九路軍全軍의 北上으로 後方警備가 疏忽한 틈을 타서 人民政府의 後方을 衝하려는 策略에서 나온 것이다

【東京上海四日發】泰順、慶元을 占據한 十九路軍은 더욱 同方面의 土民軍을 先導隊로 하야 慶元北方泉을 目標로 進擊中인 바 東部省境을 突破한 福建軍은 平陽으로 向하야 北上하는 中이다 此에 對하야 中央軍은 衢州로부터 福建에 入하야 建甌、延平方面에 大軍을 出動식혀 十九路軍의 北方으로 進軍하는 대 併하야 此를 南北으로부터 包圍하려는 作戰을 取하는 模樣이다

齋藤首相歸京

【東京電話】舊臘廿九日부터 千葉縣一宮別莊에서 靜養中이든 齋藤首相은 三日午後三時四十分 兩國驛着列車로 春子夫人同伴 歸東하얏다

總督府始務式

總督府의 始務式은 四日午前十一時부터 第一會議室에서 宇垣總督、今井田總監 各局課長以下二千의 同廳員出席으로 式을 擧行하얏다

殖銀下半期
純益金百五十萬圓

朝鮮殖産銀行昭和八年下半期純益金은 百五十二萬九千三百十六圓二十六錢이다

永久中立案前提의
比島獨立案提出
形式上의 變化가 大部分으로
比島人의 贊同은 疑問

【聯合華盛頓三日發】比律賓獨立에 關한 호ー스·캇팅法案은 昨年十月에 比島上下院에서 否決되엿던 바 同法案의 規定에 딸아 今一月十七日로써 期限이 滿了되야 同法案의 効力을 喪失하게 됨으로 一般은 그 事後를 자못 注目하고 잇는 此際에 아메리카에서 가장 有力한 政治研究團體인 外交政策協會는 一日 루ー즈벨트大統領에 對하야 比島獨立法案의 有効期間을 一月十七日로부터 다시 延長하기를 要請한 同時에 海軍根據地의 建設을 放棄하야 太平洋에 臨한 各國과의 協力에 依한 永久中立案을 進言하엿다

【東京華盛頓四日發】四日의 議會에서 유타州選出民主黨上院議員 윌니암 에취 킹氏는 아메리카合衆國의 屬領인 比律賓을 急速히 獨立식히려는 左의 私案을 提出하엿다

一、比律賓을 二十四個月以上四十個月以內에 合衆國으로부터 獨立식힐 것
一、獨立後의 比律賓에 關하야는 그 中立的立場을 確保식히기 爲하야 太平洋關係諸國의 中立保障協定을 成立식힐 것
一、右協定을 마치기 爲하야 議會는 日英米佛其他國과 國際會議를 開하고 一切의 取決을 行할 權限을 大統領에게 附與할 것

等을 規定하야 審議를 要求하엿다 딸아서 킹氏의 獨立案은 完全한 獨立을 意味하는 것이 안이라 質易其他에 關하야는 特히 便宜를 아메리카本國으로서 獲得하려고 考慮하여 아메리카自體로서는 別段實質上의 苦痛은 업고 다만 形式上의 變化로 만한 것이라 딸아서 比律賓人自身이 此種의 獨立에 贊意를 表할는지는 疑問이다

休日市場氣配

◇株式=金融市勢 出現期待로 低價에는 買氣가 잇는 模樣이나 目前은 材料를 기다린다 氣配強保合
大新 一三一、八〇
新東 一七六、三〇
鐘新 一三二、五〇
日産 一一八、七〇
◇期米=依然産地의 軟調으로 滿洲의 氣軍으로 當限을 壓迫하고잇다 氣配保合
◇綿米=氣配不變

今日本紙八面

輸入油品目
地球票石油 豐富한 在庫와
金剛山票石油 優良한 品質과
三角山票石油 低廉한 價格으로
發動機用油
揮發油 로 奉仕함
其他機械油 (特約店募集)
朝鮮、滿洲 總販賣本處
京城貞洞三三 亞細亞石油合資會社
電話光 二、〇五九番 振替京城 七、〇〇〇番

米價豫報
今後米價의 動靜은 果然 어더할 것인가 오즉 易數의 神秘正確한 今新年號特別宣傳的無料豫報를 보라 本社斷易部로부터 朝鮮日報를 通하야 임의 四五回나 發表하야 [illegible]

百圓進呈
易學은 東洋의 最高學問으로 [illegible] 年運秘鑑이 아마도 우리의 窮運을 天定

神課 年運秘鑑
初版宣傳的廉賣 定價二圓 送料二十錢 割引絶無引換代金先要十錢郵票
內容 身命家宅의 興衰、求財營謀의 成敗、婚姻疾病의 吉凶、訴訟의 勝敗、官公吏의 進退、入學受驗其他一般應試及求職의 得失等을 모다 每年春夏秋冬運宮에 明明指示、算法은 極平易。
附錄에는 內地人某易學家에서 研究發表한 期米時勢高下日割豫報表가 잇고 夢兆、前兆、仙道太乙經等이 잇다
本秘鑑은 本社의 經濟上事情에 依하야 不得已刊行한 冊인바 其內容의 神秘正確함은 참으로 感歎할 價値가 有함을 本社가 絶對保證함
易學論公
注意 米價豫報를 要할 時는 通信料及書記料로 八十錢以上 郵送하실 事 但年運秘鑑及易學公論 一時注文에는 依例盛呈함
京城堅志洞四四 振替京城二一、〇二〇、明齋易學公論社

男女簿記生徒募集
●高等簿記珠算科 ●女子タイプ兼修科
◇短期卒業◇就職紹介 入學隨時(學則要二錢)
京城實踐簿記學院 京城太平通大漢門前

朝鮮劇場
新年勇敢正月六日부터
料金 階上 大人五十錢 小人三十錢 階下 大人三十錢 小人二十錢
토비스 巨匠 ... 監督作品 銀嶺征服 全九卷
世界的山岳家 ... 百萬弗의 ... 巴里ー伯林 全九卷

桃花劇場
新春一月六日부터 特別大公演
階上 大人三十錢 小人二十錢 階下 大人二十錢 小人十錢
劇團太陽劇場第一回公演第一週
◇朴春園作 悲劇 故鄕 全二幕
幕間獨唱 崔承燕 羅仙嬌
◇任曙防編 喜活劇 戀愛는 鬪爭에서 全一幕
◇朴春園作 悲劇 豫告=次週

新時代の少年靑年は
速成科 實業講習錄
を六ヶ月學ぶが成功の早道だ

나는「實業講習錄」을 읽어서 成功하얏다!

新年新學期에 제開始? 入會의 好機 申込은 卽時

商業이란 무엇인지 아르심니까?
第一、實業에 從事하는 사람이 商業이란 무엇인가、그 本體를 아지 못하고는 汽車에 타고서 行先地를 모름과 마찬가지로 無我夢中으로는 곳 失敗한다「速成科」로는 日本一의 名講師 內池博士의 商事要項이 講述되고 잇다。

英語를 아지 못하고 商業은 안된다
또 今日、적어도 舶來品의 英文을 읽지 못하면、商業에 從事할 수 업다 이「速成科」를 六個月 배우면 英語의 가나다도 모르는 사람도、自由롭게 읽는 것이나、英語로 商業文을 쓸 수 잇는 것은 되게 됩니다。

六個月로 商業學校를 卒業하시오
本會는 商業學校에 가지 못하는 사람、現에 商店會社에 勤務하는 사람으로 商業學校를 나오지 못한 분에게、次의 講習十科目을 獨學식혀 六個月로 甲種商業學校卒業과 同等의 實力을、머리에、修得식힐 것으로 有爲의 少年靑年諸君은、卽刻入會하시오。

速成科·講習十科目
商事要項 內池法學博士
經濟學 河津法學博士
法制講話 三瀦法學博士
商業簿記 岡田早大敎授
銀行簿記 太田商大敎授
商業英語 岡田明大敎授
商業文 杉山商大敎授
商業算術 伊藤明大敎授
珠算講算 村林商大敎授
實用習字 西脇吳石

◎本會의 特色
▲卒業速하고 ▲每月三百頁
▲會費安價하며 ▲質問에 回答
▲講師는 一流 ▲奬學金提供
▲講義는 平易 ▲授業證書授與

◎顧問은 名士
會長은 實業之日本社社長 增田義一氏로 顧問에는 山本內務大臣、鳩山文部大臣、中島商工大臣、永井拓務大臣等을 비롯하야 當代一流名士가 모듸어、信用絶大이다。

會費 ▼一月分……八拾錢 ▼三月分……貳圓參拾錢 ▼卒業迄……四圓五拾錢

內容見本進呈
業書에「速成科、實業講習錄見本入用」이라고 記書申込次第 곳 無代進呈함

申込所
東京市京橋區銀座西壹ノ一 實業之日本社內
帝國實業講習會

民曆表紙를資料 農村愚氓을欺瞞

資料製造에汲汲한奸黨의行狀

所謂鄭鑑錄의正體解剖 (六)

이제 이와가치 허무맹낭한정감록을 밋기삼어 순직한농민들을 속여먹는 간악한무리들의그동안하여오든 허다한 연극중에 가장 알기쉬운것 몃가지를개괄적으로 조사하야보면 근년에이르러 총독부에서 발행하는책력(民曆)의 책거죽에인쇄한 모양(模樣)의 그림이 부황(?)놈들은그린것을 큰재료를삼아 봉을그린것은 닭(鷄)이고 그밋헤구룸구룸그린것은 룡이라는것이니 즉 계룡(鷄龍)을의미한것이니 계룡산 도읍(都邑)할때가되니까 책력에 계룡이발룡한다 하야 그것을내세우고 허다한 소위생금(?)을 바닷스며 남에(?)라는선생이엿는데 자하도(紫霞島)라 선의주인이며 그곳이 정착조고그곳에는 일곱사람의성관(?)이 잇서 계룡산도읍할때를 기다리고 장생불로하는 풀도초를기르는데 치성을 드려야한다고금전을편취하얏다

×

정감록에 계룡에돌이 희여지고 곳개(?)에 배가다니면세상일을다안다고하얏는데계룡산돌이 경든것이 희여젓고 금강(錦江)의하천정리(河川整理)로 곳개다제절로 되는것이며 솟단에걸에배가 다니게되엿스니 마사가 펏하면 『뻘죽한수가잇느냐』고 하는말이 잇슴을보아 그소위 『뻘죽한수』라는것은 세상이 다 허리를까그나 저갑톡읏고 신도가 실현하는때를바라서 머리까지아니하고 상투대로 가지고 잇는 사람들의 『상투』를말하는 것이니 신도의실현도 다된일이며 『뻘죽한수』의 효험을보기도 불원한 장래라고하야 귀에걸면 『귀고리』오 코에걸면코거리라는말과가티 어리저리 말을돌려부치어가며 사람을 속이고잇다

×

우리들이 상고할수업는 옛날에잇서 이미여러번 갑자(甲子)든해에대한가지가지 미신과 풍설이 은밀한속에 만엇슬것이나 지나간것은모다 물에흘려며 버리고라도 우리들이 보아알고들어아는바에서만도 갑오(甲午)이후 여러갑자든해를 두고두고속여오든 옥중한자들은 옥중한중에더욱협사(挾詐)를 하야서 혹은 무슨교이니 무슨도이니 하고 가지각색의 가면을 쓰고나서더니 조선의 처지를 근본적으로변화식이는 큰계긔(契機)가되든일청(日淸)과일로(日露)의두 전역(戰役)을 앞아마치기커녕은 근사한어림도 못마친그소위예언 더욱이 일청일로의두커쟁탬포리부처노은 동학당의작란도 건혀모른 그소위예언이란것을가지고 아 이상더속일수어습을깨닷고 다시 교활하되 쉽상말도안되는궤변(詭辯)을작만하엿다

◇사진은계룡산신도안

寒波의威脅은 連日을두고繼續

全朝鮮的으로는罕有의高溫

今日小寒과天候打診

소설(小雪)대설(大雪)도어느듯 지나가고 내일(來일)이 벌서소한(小寒)이다

초겨울동안은 봄을 생각케하는 온기가계속하야『아스팔트』우헤 녹아나리는 부드러운 햇볏속에는『봄의호흡』조차 숨어 잇는듯하엿다

그러더니양력정초를전후하야갑작이엄습해오는추위는역시엄동의맹위를그대로뿜내여시민의피부에 쓰리도록인상시키고야 만다 이는 대륙(大陸)에발전하는 렬의고기압(高氣壓)의고압지안온방향으로서요지음사오일내의 경성시내의 온도는 례년에비하야 삼도내외가떠내려서 한강의 겨울면을달라는『스케이터』의가슴은뒤노지만거리의『루펜』들의 눈물은쓰릴지경이다

그러나 조선각지의 청초전후의 기온은 근년에엇든 고온으로서 각측후소개설이래의 기록에 접근하야 대구(大邱)와 가튼데는 과거이십칠년이래의신기록이라한다

강수량(降水量)은 조선 중부는 평년보다 만어서 금강산(金剛山)을중심으로 강설이상당하야 『스키여』의호시절이왓고반도의 북부남부지방은 비교적 적엇다 한다바람의속도는평년보다약하야폭풍의기세는 아모데도 업섯다실로 『동기건선이상이업다』

大邱府營瓦斯 漸次具體化

府尹이調查次出張

【大邱】대구부내의 전등료(電燈料)가 다른도시에 비하여 만히 빗싸다는 비난으로 당지 대흥전긔주식회사(大興電氣株式會社)는 전번에 이여론에부대껴 다소 감하는하얏다고하나 이에대한 보진책(補塡策)으로 교묘한 수단으로 요스음 시내에만도 대략 팔천등의 전등을 강권하여노코 전력(電力)의『뽀르트』는 역시 종전의그것만을 배급하여 시민의안목을 미봉하여나간다하여 요스음 더욱 여론이 비등한중에 잇는바 영리만을 목적으로하는 이러한민간회사에게 독점케 하여서는 언제나 이러한폐단이 잇슬것임으로부영와사(府營瓦斯)를실시하여달라는 일반의 여론에부당국에서는 지난번에 부회의를열고이에대한 토의를하여 즉석에서부영 와사실시위원을 선정한후위선 선진도시인 일본각지의 와사시설지를 실지조사케 한바 시설이 극히 량호한것을 목도하고 이와 구체화하게되자 이에 놀래인 동 전기회사에서는 이에대응책으로 경성각처에 잇는 지점(支店)을 전부페지식혀출장소로 변경을하여 인원을도태하고 만일의경우에 응할 대책으로 경비를밧작 조려놋는 일방 아무리부영와사가 설치된다하드래도 우리에게 한등손실이업다는말로 버티게되여 더욱 량자의관계가 미묘하야가는 늣김어잇는바 그러한이즈음 별안간다하(多賀) 대구부윤은 금오 일굴천(堀川)권업계주임을대동하고 략이십일간예정 으로동경을비롯하여 일본각지의 팔대시의와사실시한곳을다시한번구

旣婚한딸誘引코 男便背反코逃亡

【山淸】남편이첩을엇게됨으로 십년간을별거하다가 결국은 그원한을 풀고자 결혼까지한자긔가 나흔친딸을 꾀여가지고타락의구렁에 너흐라는한 녀성이 잇다 그는산청군생초면 대포리(生草面大浦里)에사는 민영덕(閔泳德)(五○)의처양봉검(梁鳳[illegible]

勞賃消費하고 虛僞强盜告發

元旦에『넌센스』劇

【平壤】이일오전령시십분에 한소녀이 평양서에뛰여 들어와 지금두명의 큰상강도에게 숏겨 돈을바터 현금팔원이십삼전을 강탈당햇다고 터듣터듬 떠들고잇슴으로 숙직하고잇든 金산(小山) 사법주임이하수명이현장에 급행하여 수사를하고 엄중조사한결과 이일아츰에일오터 허위고발인것이 판명되엿다 그소녀은 부내 신양리(新陽里) 일백칠십 칠번지의 삼십육호 김찬수(金燦守)집에 동거하고잇는 대동 양말공장(大同靴襪工場) 직공 한원소(韓元小)(二八)로서 동양공장에서 임금을타서 다써업시하고 밥갑졸것이 걱정되여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신양리 숭실전문학교압에서 두사람의 칼가진 남자를만나 돈내라고 협박함으로 전부주엇다고 허위고발을하엿든것을 자백하여 구류처분을 당하엿다고한다

자긔남편으로서 자긔남편이첩을맛게됨으로부터십년의장구한세월이흐르도록 별거하여 오든중 지난 십이월이십칠일오후 돌연자긔남편을 차저와서 리혼수속을요구하매 남편이 귀치안타고 피신함을 조흔긔회로하야 삼십여원이 들어잇는 돈궤를가지고 어대로인지 행방을 감추엇다는바 자긔의친딸(同面月谷里崔泰鎭의妻)까지다리고갓다는데 권긔민씨는 사위를대할면목이 업다하야 딸을찾고저 사방으로분주히헤매고잇다한다

千圓契約을 萬圓으로變造

南原郡下의保險詐欺

【南原】피보험자사망으로인하야 보험료를내줌을 기화하로 야 천원이란계약을 다시신입밧고 본사에보고하기는 만원증으로변조를하야 만원에대한 일회불입금을 공제하고 남어지만내려보내게한 사실이 발생되얏다한다 이제 이문제의 상세한 내막을들으면 남원군수지면 호곡리(南原郡水旨面好谷里)에거주하든박태(朴泰)씨가금년음칠월에 사망하게되자 생전에일청생명보험회사(日淸生命保險會社)에가입한바잇서 천원이란 보험료를 찾게되엿든데 그때에전기회사에서최석준(崔錫俊)이란사원이 내려와서 사망에대한조사를맛치고그유족에대하야다시보험에 가입해달나고함으로 전기박씨의차자천식(天植)씨의명의로다시천원의계약을체결하고본저쓴보험금중에서천원에대한일회불입금을공제하고남어지를보내주기로한바인데 지난달에 실지보험료가 내려오기를 만원에대한일회 불입금을 공제하고보냇슴으로 즉시그리유를 전기회사경서지사로 조회한즉 다시신입한보험 증이만원이라하며 하등명쾌한 책임잇는 답을해주지 아니함으로 전기 박씨가에서는 부득이 법적문제를 제기할수밧게업게되겟다고한다

城大教授自稱코 無錢遊興

【大田】요사이 대전시내에는 경성대학교수(城大敎授)라는 명함을가진자가 들어와서시내각국리집에서 돈업는 호걸의 자미스러운 유흥을하다가 그만 류치장신세를 지고잇는 사긔유흥자가잇다 그는 일정한주소가 [illegible] 대교수와 행세를하고 아모일도 보는것이업서 각료리집으로 도라다니며 질탕하게 놀고만잇슴으로 경찰당국의 주목을바다 오든터에 지난이십팔일에 춘일정 모유곽에서 또미기놀과 유흥을 하다가 녀밀장계서원에게 걸려엇다 그는 저머서마음것 먹고 놀고십으나 원수의돈이 업서서 명함으로나 놀아보려고 그가치 놀든것이라고한다

咸安郡下에 時局標榜强盜

一場格鬪後被逮

【咸安支局特電】삼일새벽세시에 경남함안군 가야면신음리(咸安郡伽倻面新音里)재산가안창수(安昌洙)씨의 집에 강도한명이침입하야 안씨의 모친리부인을기리한지가량되는식도로써 위협하면서 자기는 상해조선○○저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러 왓다고자칭하고 돈을내어노라하야 겨우 돈일원오십구전을강탈하여가지고 유유히 다라낫다 이급보를 밧고 가야경관주재소에서는 궁본(宮本)김(金)량순사가 출동하야 그동리근처에서 약이십분간 격투한뒤에 체포하엿다 범인은 그근처법수면(法守面)사는 조유상(趙鏞尙)(二二)이라는자이다 함안 경찰서에서는엄중히 취조중이다

貧困者에粟米配給

나랑(?)府社무소에서는 예월에 빈곤한 로인십칠명에게 조(粟)를 메인당 삼두칠승씩배급하야주엇다고한다

天氣豫報

晴一時曇

北鮮方面의高氣壓은그勢力이漸漸衰弱해가나 아직도七七○粍를보이고잇스며 朝鮮을經由하야 日本으로向하야 점점低下하고잇다 南西海岸은 雲天이고其他는 日氣가조타 北風이부려서氣溫은 昨朝보다노푸다

日本各地에大雪

日本海沿岸은丈餘나積雪

各地의被害도不少

【電通長岡電話】신년부터계속해퍼붓는 눈은 삼일밤부터강설이 증가하야 적설은장강(長岡)지방은오척 산간부는 일장이삼척으로서 조화류년 이래의 적설이다

【電通高田電話】신월구경밋일본해연해지방은 삼일이래 취설이 맹렬하야 화물열차에만재한채짐은 각역구내에 산적하야 신월구경의 강온쳐지는 십척이상 고전(高田)지방도륙척이상에달하야 각지의 설해가심함모양이다

【電通富山電話】연일의풍설로인하야 사일에는 부산(富山)지방의 적설이약삼척에 달하야 권차자동차등의 교통기관은 모다두절되고 북륙본선을 비롯하야각선모다 삼사십분식 지연되엿스며 권주의골피가만엇고 권신전화는 거의전멸에빈하야 복구는 용이하지안타 금년의눈은 수분을 품고잇슴으로 가옥이도괴할념려가 잇서서 각지방에서 경계중이다

【電通大町電話其一】초하루부터 내리기시작한 서일본일대는대취설로 인하야 각철도선로에서 상태가되고 배설(排雪)작용에 총동원한몽상세근록로타리놀란그마쿠래의 제설활동도하등의 효과가업시 렬차는각지에서 부득히 정차되여그지방의다이야는 순전히 혼란상태에잇다고한다

【電通大町電話其二】대정지방의눈은사일에이르러서도의연히쉬지아니하야 대정사어천선(絲魚川線)의 찬양역(仁科驛)구배의눈은 어송작 좌야판(佐野坂)은한길두자나되는 근래에 드문 적설이며 더구나 분설이가때문에 략셀차도운진할수가엇서 사일아츰부터 대정역구내의 과차들은 전차되여 좌야판이북은어는때나 개통될는지 예단할수엄스며 백오십여명이나되는 스키어들은 각숙사에 체재한식량을 충복하기때문에아직위험치는안타고한다

全日本高專럭비一大會

普成專門럭비軍 天理外語를又擊破

優勝은目前에切迫

【大阪支局電話】第九回全日本高專럭비一大會準決勝戰에서 [illegible] 普成專門은 [illegible] 한뒤를이어 天理外語專門學校와 四日午後二時三十分부터 花園競技場에서 [illegible] 普成專門은 [illegible] 結局十六對三으로 天理外語를 擊破하엿다 (天理外語는第一戰에 東北學院을 十七對五로 이긴强軍이다) 이리하야 압흐로남은決勝戰에는 早高와同志社高商과의勝者와雌雄을決하게되엿다

普專16(5-0, 11-3)3天理

아이스하키一試合 延專快勝

延專6 京師俱2

延專對京師(B俱樂部아이스하키試合은 三日午後一時부터 延專『링그』에서行한바『第一라운드』에二對一 第二『라운드』에二對零 第三『라운드』에二對一 結局六對二로延專快勝

普專籠球團 上海遠征記 【6】

코-취 金永述

이제는最後까지 압호로 時間이五秒밧게 아니남엇슴으로 (이때計時員은 終了를告할려고 징을들고 잇섯습니다) 이제는 누구나할을 잡으면 [illegible] 가지고잇슬때 右側에서 鄭[illegible]君에게서비든 패스를 [illegible]君이캐취하야 自信잇는長投成功으로 33-33이라는스코어로 되엿습니다 그때에도바場內의 形便은 다시말슴치안트라도짐작으로아실듯합니다

【延長戰】開始後數分에 敵의犯則으로 宋의自由投二個가다成功되야 2點을 리-드後即時敵의『포맨숀●플레이』로곰을빼앗기여 2-2同點 二分에化泳君의中投成功으로 4-2 다시 敵의得點로 4-4同點되자三分에連 [illegible] 得點으로8-4로 리-드된체 스톨링을하야波瀾만흔이戰은41-37이라는스코어로得勝하얏습니다 朝鮮팀의遠征史上最初戰에 익어여보기는 이번이처음이엿습니다 이번에 우리의勝利는 여러가지原因이 잇겟지만 그中에도 自由投成功에이엇습니다 十投中九成功이라는 普專팀으로서는 前에보지못하든好成績이엿습니다 審判에잇서 참으로말할수업시誤審이만엇든것만은 念慮하든바에 的中하엿다고봄니다 그럼으로 過去日本팀들이 이곳에왓다가 審判에不平과 甚至於 辱까지 써노은것을 回想할때 果然그러하엿스리라고 是認케되엿습니다 이러한審判制度下에 訓練된그들로 지난 極東大會時에 比較的審判이 嚴正하다고볼수잇는 日本審判下에慘敗를當한것도 當然하다고 生覺케되엿습니다

大學高專氷上하키一 明大北大各勝

【西道日光電話】全日本大學高專氷上大會第三日아이스하키一第一回戰績은 아래와갓다

明大3 (2-0, 0-0, 1-0) 0早大

北大4 (0-1, 3-0, 1-1) 2東北

피-규어스케-팅 慶應連覇

【電通日光電話】一月二●三兩日間에行한第九回全日本大學高專피-규어스케-팅成績은四日午前九時審判部長으로부터發表한바豫想그대로慶應도優勝하엿다

▲1慶應▲2[illegible]▲3明大▲4早大

海外뉴-스

囚人에게스포-츠講話

英國의E刑務所에서는『크리켓트』의同國代表選手『호프』氏를 同所에招聘하야 囚人一同에게 英國『크리켓트』의隆阿及濠洲遠征談을하게하엿다는데 一同은感激하야 만은効果가잇섯다고한다 修養講話로서 스포-츠資料를 認定키로되엿다고

國際庭球結婚

獨逸女流庭球選手로서 昨年度同國랑킹그에第一位를占한『그라二렘』嬢과丁抹庭球代表『스벨링』氏와의 結婚式은 十二月二十八日엇센市에서 行하엿다고

本舖 株式會社 [illegible]

書簡文이면 무엇이고알수잇는 破天荒의大景品付亂賣

完備로 大好評의 日本書簡文寶典 第一

◆組合式과 新案辭典式의長處를採取한 ◆新時代에適應한新講義인無比의名著

二名 手紙大寶典

本書는書翰文講習會에서十數年苦心한結果編成된最新式의案理想的『R簡講義』인實典인즉一次冊張을젓치면아모리片紙쓰기서투른이라도生覺나는대로片紙를즉席에서쓸수잇소 本書는書簡文의初步로부터說明하야片紙文의法則△日用文△商用文△候文△葉書文△日語文△男女間愛의片紙△趣味片紙文其他모든片紙쓰는法과數百의文例를揭하야親切히講述한바實로便利한法此外에억습

定價三圓이나 大特價壹圓四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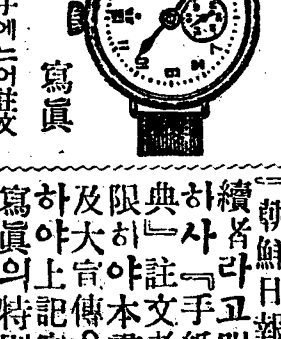
二大附錄添付 第一附錄(菊半截) 펜字草書辭典 第二別冊附錄四六判 屆書法 一名代書人無用

體裁四六判總數五百數十頁 總クロース金文字入豪華版特上製美本

●前金送料十八錢 代金引替はハガキ申込次第 送料共壹圓七十五錢

流行型腕卷クローム側優美時計形方針指針正確保證付

時別景品 無代進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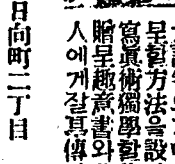
實物寫眞

●이時別景品은箱子에느어註文 ●書籍과同封包裝은嚴重히小包 ●郵便으로送付함

大景品進呈 『朝鮮日報』愛讀者라고 明記하야『手紙寶典』註文者에게 本書를普及하는 限에서 大宣傳을爲하야上記實物寫眞의特別景品을 一個式無代進呈

發行所 東京市小石川區小日向台町二 振替東京一九一六一番 大昭堂書店

暗室不用 家庭用寫眞機無代呈



겨울趣味는카메라로 實物宣傳目的(一名一個)

서투른분、兒孩라도곳자미잇게撮影할수잇는 大評判의가메라를實物宣傳으로、今回無代贈呈할方法을設하고希望者에게頒布함希望者는 寫眞術獨學書代二錢切手를六枚封入申込次第 贈呈趣意書와共히急送함寫眞機讀取後知己友人에게잘寫傳하십을乞함

●申込所 東京小石川小日向町二丁目 東洋寫眞機商會宣傳部

恩給

長期短期極有利 立替照會細密 京城按恩洞一六○ 鄭商會

登錄商標 선북거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 電光一一五九

都賣散賣

鑛山用藥品 工業藥品 衛生材料 醫療器械 處方調劑 醫療藥品 有名賣藥

山崎仁壽堂

京城府鐘路四丁目 電車交叉点 電光化門二五六番 振替京城八○八番

朝鮮레코-드界에未曾有의好景氣時代를招來한 劃世紀的廉價盤(十二月二十日既發賣)

키린조선레코-드

一枚定價 六十錢

古代悲劇 沈淸傳 金振門……編 兩面十吋盤

南道소리、西道소리、넌센스 流行歌、朝鮮古典樂等十種

第一劇場

鐘路四丁目 電光二七五

一月四日낫부터 每日二回 낫一時 밤七時 始映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 均一

센지리고메미作品 人間征服 全八卷

喜劇 米國와!너版超特作品 파시!루스미라嬢主演 도라오는令孃 全八卷

어나배나팬에靑春은사랑을부르짓는다女子가男子를사랑하며男子가女子를사랑할때엇더한것이잡된사랑일가보고도르시라愛의메로드!

松竹키네마社超特作品 現代名篇 愚弟賢兄 全十卷 水上幸子 小林十九二 花岡菊子 若水鶴子 主演

키쿠치小說에新記되여서만흔紙誌을바든이것을映畫化한것입니다 일흠부터드러보아도얼마나興味잇겟습니가우리가한번兄弟를生覺한다면꼭보아두서야할名畫올시다

團成社

授恩洞 電光九九九

新春第二週五日晝間부터

▲파社特作全發聲日本版 미리암호푸킨스嬢 主演 스테핸·로바-드氏監督 名作 暴風의處女 全九卷 處女時代에때아닌暴風이오면그꼿은짓꿋송이에서리가오네이것은넘우도劇的興趣와玲瓏한氣品을完備한珠玉篇!

▲파社提供코럼비아發聲日本版 메이크라그嬢캐롤스●롬바-드氏主演 광의딸 全八卷 人生의回轉木馬! 暗黑街에피여난純情의곳은이약이그延長은第一級作品以上!

▲파社特作全發聲日本版 란돌푸스카-드氏主演 沙漠의遺産 全七卷 西部劇小說의第一人者젠그레이氏筆致에심니어이곳西部高原에 외어치는壯烈快絶無限男兒의死線突破劇

優美館

貫鐵洞 電光三九五

世界의人氣를獨占하고잇는大怪優 一月五日브터 와너나金喇叭特作全發聲日本版 마빙-리로이氏監督 巨星폴-무니氏一生一代의最大熱演 假面의米國 全十卷

[illegible] 映畫의第一位를占한 조지아洲鐵鎖囚人의 [illegible]

極樂의兵隊 全八卷 스탄로!렐리하디! 共演 [illegible]

村落에서 都市에 都市에서 村落에

江陵

今年에實現해야할 江陵의三大問題

江陵 一記者

동부조선에 잇서서려사로나 지리로나 물화로나기타 허다한 점으로보아 현하강릉에잇서서 긴급히실현하여야할문제가 허다하지마는 그중에도 가장중요하다고볼것은 이하에 열거한교육, 상공, 교통등문제이겟기로 이에 그의대략을 들어말코자하는바이다

◇農校昇格과 女高普問題

강릉공립 농업학교는 삼년제인 을종실업학교로서 이학교가 실현되기 까지에 만흔곡절은노노할필요가 업거니와 설립비의대부분을 지원주민이 담당하야설치하게 된것으로 당시이삼년내에 갑종학교로 승격한다는당국의선언이 잇슴으로불구하고 그대로금일까지 이른것으로 이것을 갑종으로 승격하기위하야 요로에 긔회잇슬네마다 진정한효과가 비로소소화팔년에야 생기게되여 도지방비예산에까지 승격에요하는 경비가계상되엇섯다 그래서 서류의불비가업는한 소화팔년 신학긔나그런치안으면 이학긔초에는 어김업시 갑종승격의 실현을보게되리라 하든것이 가튼부트말도업시슬석 금년으로 아문제는넘기게되엿다 당국의 말에의하면이학교는 소위사상적 배경으로동맹휴교 문제가 속출한것이라서 이것이 결국 갑종승격문제에까지영향이 미처 해결을 짓지못하게된 중요한 원인이라고하나이것은 정당한리유가 못되고 승격이 속히실현못된 중요한원인은 이보다다른데에 잇슴을우리는 아러야할것이다 요컨대이문제는 우리지방에 가장주요한 문제의 하나임으로 우리는좀더 힘찬여론으로써 당국을 편달하야 긔어코 실현에매진할것이라고생각한다

동해안일대에 중심지이며 집단지로서 타의추종을 허락지안호리만큼 각방면에우수한 지위를가진 본군에 시설을요할문제는 여러가지가 잇스나그중에도 가장주요한것은 녀자중등학교의 설치가 곳이것이라할수잇슬것이다 동해안 육군에 십만에갓가운 주민이잇스면서 녀자중등학교 일개소가업는것이 심히 유감 이려니와만약이것이 설치된다면 지리적으로중앙지점인 본군이가장 우수한후보지인데 그지원민된 자가 여긔에대하야 너머도 무관심한듯한태도임에는 놀나지안흘 수업다 교육의필요를 노노할바아니지만우리는 무엇보다도 자녀의교육적 향상에대하야는 특별한관심을 가저야 할것이다 그럼으로 우리는 금념에새로 이문제에 대하야 다대한관심을 가저서 유긔적 활동을합어잇기를 바라는바가크다

◇相互扶助의 商工機關組織

강릉의 상권은 우리들수중에 아주 장악되엇다고 보와도과언이아닌동시에 이것이 우리의가신바 한갓자랑이라면 자랑일은누구나다-공인할수잇는것이다 그러나우리 상업자간에 상호부조를 목적하야만든바의 단체가 여러개 잇는것을보고드럿는데 우리는이것을 통일하야 한개의 굿센힘을가진바단체를 만들기를 제창하고십다

분산의결점과 모둠의 장점을잘 아는우리로서는 맛당히 소수의 감정을 배격하고다수의 리득을 위하야 대동적단체의 발생을녕합하여마지안는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때에우리강릉의 상공업계는 실노 견실한 발전이잇슬것을 굿게미듬으로본제를끄내는것이다 모름직이 이실시를바라고생각한다

◇東海岸鐵道 工事促進件

지금동해안철도는 고성군까지 공사를하고잇는대 이것을속히 강릉으로 연장시켜야되겟다 함은 본군민뿐만이아니고양양(襄陽)삼척(三陟)울진(蔚珍)기타 부산등지에서 일치된 여론으로 특히본군으로써 이것이 되고안됨에따라 산업계에영향 하는바는크다 지금농민의유일한 재원인 곡물의가격은 동해안일대에서 가장저렴한형편이며 이와반대로 일반물화의고가는 유달은형편이다

이것은전부교통의불비로인한것이라서 이것을수자적으로 지적한다면 곡물만으로 치더라도교통의리편으로말미암어농민에게 도라올리윤이란 현가격에서 최소한도내의 것을 치더라도년백만원을불하할것으로빈핍한농민에게 이금액이 결코적은것은아니다

또한산림(森林)이아즉도본격적으로벌채를착수못한것의원인이도교통불비에 엇는것인데만일 철도가 부설되다면년수천만척체의 재목을 내일수잇스니이사업이 개시됨을 말미암어산간지대에 거주하는 수천빈민에게일터를 줌으로서의 미치는바경제적리유은 다대하다 할것이다

그럼으로 이문제에 대하야는본군민뿐만이 아니고 관계각군민들과 유긔적 련락을취하야수차의진정이잇섯고 또한 당국자도 일시 련장공사를 중지하려고하든것을 변경하야공사를 계속한다고하니 우리들은 좀더관심을 가저 당국을편달하는여론와 환긔가 부절할것을 이긔회에말해둔다

沙里院

爲先緊急한 三個施設

李穆榮氏談

우리사리원에 가장 빗나고 자랑거리가 될만하게발뎐될길은 첫재우리지방인사가 단합하여친목하며공명정대하고 사회의봉사적사업을존중이할것이며둘재는다가티우리지방을위하야일치협력하야로력하지안으면안될것이라고한다이두가지가 실행되다면무슨일에당하든지성공치못할일이업슬것이며 또 이가튼것을 실행하자면 상당한긔관도설비하고 따라서 활동할용긔를주어야 될줄안다 우리사리원으로말하면 호스수가 팔천여나 놀파하고 인구가 이만륙천여명되도록 장족의발전이되고 압호로도 더욱발전의희망은 예상키도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경제계도 놀날만치 발전이되고잇스나 모든설비와긔관이 불충분한관계로 일반의복리를 더증진시기지못하는것은다가티유감으로아는바이다(一)문화향상의근본될교육방면으로는 중등학교, 야간실업보습학교대표적유치원을 설치할필요가잇고(二) 학술기타의 강연회등을 종종열어사회의 공익적사업이며 산업과관과 상공단체에 더욱힘이잇도록 충실케하며(三) 공중을위하야 운동장이며 이러한것은 다가티 필요한것으로 아는바나 아직까지 그실현의길도 밟지못한원인은 우리가 자조집회할장소가업는것이 큰원인이라고 생각하는바이다 그럿타면 우리사리원의 발전할방도는무엇부터일가이것저것아무리생각하여도제일급선무가집회장소건설이첫사업이라고아는동시에 여러분들이에 분발하야시급히실현되기를바라는바이다

◇寫眞……李穆榮氏

啓蒙運動이 곳發展의根源

崔準集氏談

내지방 발전책에는 여러가지문제가 만흘것이나 나는 번영을 도모하는 근본문제로 드려가서 「사람이자긔인식」을 함으로써 비로소 모-든 사물에대한관심력을 자어낼수가 잇는것인대이 관심력을 내게하는 주된것은교육 그것에 긔대하는수박게업다 본군의 우리민중의 지식정도을 일별한다면 실로한심하다는 것이라할터이다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녀의교육도 물론생각하여야할것이다 목전에 급박한것은성인교육(成人教育)문제라고생각한다

첫재로자긔그자신이실로자각하야서비로소그효과를나타낼수잇는것임으로 그자각을 촉하는것은곳교육정도 여하에 따라서경중의차가 현격한것인즉 우리는 첫재로 계몽운동을 대대적으로 일루워야할 원인을여긔서 차저볼수잇다할것이다

이계몽운동이 완성 되는때에는 우리지방의 발전책은 자연우러나올것이라고밋는바이다

◇寫眞…崔準集氏

永同

發展을期함엔 爲先備荒貯蓄

李海用氏談

일향의발전을꾀하랴면 먼저개인의발권을 꾀하여야한다 그럼으로 사람사람이 물질과정신 양방면의실력배양에자각하야인격완성을 도합이무엇보다 최급무일것이니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신방면으로 신앙은 인생의목표인반큼 필요하다문명한 민족일수록 신앙심이만타 그럼으로 각종교단체와 련락을 취앙은물론 명륜회의활동을촉하야 동양도덕의정신을 진작할것이며 상식교육보급으로는 겨울를 리용하야 군교육회주최로 계몽운동을 이르키여올에는 제일긔로남녀 사실세이하의 까막눈들목표로 군내사백여개소의 야학을개설하엿다 그리고다녀간 숙제인 실업학교 설치문제는 「손재하씨의 거액의 희사로긔초가 일층 공고하여것이와 모도가물질방면으로 피폐를 당한 우리에게는 먼저 생활개선산업개량을촉진하야 다른나리의 업는춘궁을 업세며농촌의암종인 부채상환을 꾀하야생활안정을 도모함에잇다 한재대책으로는 논의 긔본조사를 단행하야 관개개량 지목변경을 장려하며 일방권작개량증산을 도하는시에 비황저축을 철저실행함이필요하다 부업으로는 면저자작자급의 정신과 잉여로력의합리화를 긔키위하야 가마니를겨울동안 백만매목표로 장려하고본군 특산인호도와 감을증산장려하고 면작을 수한 광업지대인만치 금산도로의 개통과책금의조상을 도하야

◇寫眞…李海用氏

아울러 로임의산포를 긔하며또 생업구락가튼 긔관을 조직하야 기업가의 련락협조와 향상을도할도필요하며 중요교통 으로영동보은간 확장중모간 추풍유산간도로공작물완성, 영동이원간 일등도로, 영동 월전간도로 개척을도하야 중요시장에 교통완비을 긔할것이다 시장발전의엄조로 중소상공업자의 련락친목을도키위하야 구락부갓흔 무슨 긔관을 조직할도 필요할가한다

江景

苟且히말하자면 爲先社會的施設

尹吉重氏談

강경은 조선유수의평야를가진부도시라하야 자타가 공인하고 잇는내고향이니 이에발전할듯한 계획과방책이잇스리라하야무르시는것갓호나 실로 발전이라할지는동시에 사회문물의 진보를 은 외관과내용이 오직충실하여 보는것이아니겟습닛가 그 의미오서나는주저치안코발전할길이 오인에게는업다고하오 길이나 뭅히고 벼돌집이나 이상치지여노아서 우리 강경이가발전한다고 할수업지요 진정 우리의생활은극도로부화하여젓슬뿐이니 생활내용이 도모지충실치 못하야발전할가망은아조업는가합니다 엇더케하여야 발전하리라고는오즉정치적방침과사회적시설이민중의복리를본위로하고 출발하는 발전책이업스면 아니될줄압니다 그리하야 지금이대로본다면아모것도발전책을말할 필요가업다하여도무방합니다운운

新義州

세가지의 施設과改修

金錫桓氏談

우리시굴은십칠세긔 이건부터 대중무역관계로 번영이 컨선에 웃등이더니시대의변천으로 압록강철교가련락되는동시에 신의주가특설되여 평북의수부인난큼 사법재판과교육긔관등의 시설이대략 설비되엿스며 그중에도독특한 세력은 무역방면이다 즉금으로부터 삼년이전은대중무역에 수출보다수입이초과되여 일개인의리해는하여튼지 권체타산은 리의상반이든것이 만주국이독립된이후로는 정반대로수출이격증되여 륙지통상이나타나서 솔직히말하면 일본의 접한관계로 시시로노현상이나 추국에라진하는때이라 우리의 문명과물질이 돌비적으로 만힘잇는대로피나는대로 매진하여야할 신흥도시로서 물비한점이적지안호니 부내의구역을 구별치말고 하수도의 보편정리와 녀자고등학교설립과배수뽐푸수리등이 긴급하지만이것은사업이거대한지라도와부당국의주소동념하는바이라관청시설에맥가고 우리민간측자력으로 주선할만한것은 위선략락히세여도 세가지일이잇다

(一) 전조선유일한압강목재이다 목재가백두산부근에서채취하여압록강을류하하여 안동현과신의주에서 영림창분이약간 중국측 재목공사분이약간 개인분이 약간이와가티매년백만척체(尺締)가 집산되는지이십여년의 장세월이 지내도록 우리의자력으로한곳의 제재공장이업는것을넘어도 감각력이 박약하고 자기심에 긔인한듯하다

(二) 논려관의정돈이니 처음오는사람이보면 무슨려관무슨려관하는 문패언듯언듯보이여 이곳의번창을 장식한듯하나 가옥용식의 몰비향이도려여 번영을나타내이는듯하다지금권만주 중화오천리의 인여물(人與物)이 통방을향하여광명을바라며 일본과조선에서과잉되여 방황하는인구가 서방으로 활로를구하는 이지음에 장충한 제일관문이 이곳이다 선봉으로 관광객과 시찰단이며뒤를니어 자본가와 원속하생이 당지할것은 안권에동착한사실이다 이를옹접하며 이를위안할만한 방옥 정원의소쇄와 음식 접용의설판이필요로할것이다

(三) 은알뜰한금융긔관이니 특별히 알뜰한것을말하는것은 무다라 은행처를귀정이엄하던 지금를조합처를 수속이세밀치말고 우리의내정을잘알아서민활을원하는뜻인바 금액은십만원, 오만원이라도족하다 이신의주에도 한가지례를면채시조합에서 조합원의룡동을도모하여 모은행예금이만원을차입하여순환한지 삼사년에성적이 량호할뿐외라 조합의권도가매우유망하니 이것을보더라도가히미루어알것이다

論山

爲先말하면 六個條의施設

金鍾國氏談

우리논산에 는진개안제일가는포구로 시녯날의 발전이상당하여서 큰은노섭한듯하나 군청이 잇고 치수공장이잇는관계로 한칭번화 하야 충남서남부의가경과아울녀서큰도회라하지만우리들의정영하는사업과그시설노보아서과연 보잘것이업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의형편은 큼직한자본을 움직여시야살가? 멀가?의 최후결정을 할것가튼데 누가그러케 맘세조흔 부자가 확발이나와서 긔업을 썩썩하나요 다못압담한 일이외다 지금내고장 논산을두고 발전책을강구하자면, 다음과 가튼것이나 좀게획하는것이 조흘가합니다

一、論江驛ー스運轉…論과심기로거리의 논산강경간은 농물의운반과 거타관계로 매양하는 사람이 엄청이 비록기차와승합자동차를 이용한다 하여도 불편이 만함으로 아침부터저녁까지 뻐ー스를 운전하야교통을 도아주는것이 조흘것이요

二、商工資金의融通制度…소상공업자의 자본을 저리로융통케하야 그사업을 발달케할것이니 이것은금융긔관에 잇서서십분고려하야 사계의 발전을조장할것이요

三、錦輪山川을市場敷地로使用…금강천수공사로 매여지는 「놀메개올」을매축하고현재시가권쪽을 사용하는 시장을온기는것이 조흘것이요

四、農産物加工業의獎勵…당국에서 농산물가공업의연구를신중히하야민간으로하야금긔업케하고이것을지도하여줄것

五、女高普設立…충청전라경상삼도를두고 논산에 녀고보를 설입함은 위치와 교통상지대한편의가 잇슬것임에 하로속히설입을 촉진할것

六、濫熾保勝地의光復…탐승객을끌기위하야 은진미륵의 선전을 철저히하고 보승시설을 충분히할것등

南原

資金업는計劃은 結局은헛夢想

徐香國氏談

어느지방을물론코 번영케되려면첫제 무엇보담도돈이제일일것이요 돈만잇서서살활용만한다면 번영책이야별러업겟지요 돈이업서서딱하기도 하지만 돈잇고도유리히 사용치못한다면 가망업는 노릇이고 따라 돈잇는 지방부자들의 태도도 매우 주목하라면 엇더케하면 되겟다는 복안은 잇지마는 결국 최후의난관인 돈그것이 업서서는 도저히긔대키 어렵습니다 돈업시헛된 계획을 하느니보담 도돈잇는 부자들의태도 여하가 주목되는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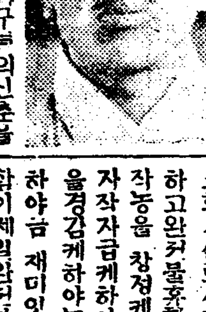
남원인후리 고향도 재산가도만히잇고 번영상가치 잇슬만한사업도해야탈수업시만치안슴니까 그러나그 부자들이 케케묵은고리대금 업이나그려치안 하면술계집아편 방탕생활로 만경주하게되니 이것이매우딱한 노릇입니다

瑞山

農漁村을救하고야 將來發展이잇다

韓東壁氏談

우리고향은충청남도서북단에처한일대반도로서동은당진례산군, 독남은 홍성군에 접하고 서와남북은발해에임하야 이십면이 백삼십이개리를가진 골인데 어렴시수에 불만족한것이업고 긔후로도 극열극한의 변후가업시 적당한지대라생활상세일안락지가될으로 자연의발권을취하야오결과겸하야경제계의변동으로서농산어촌의궁경에처한바를 구제치 못하면 발권의도리가컨무할가 기피늣기는바이다소회구는의신춘을 마집에당하야 우리고향의 실지발견책을 진술하면 산업이니교통이니 교육이니에도 정치적시설을요할것은 우리의 관심할바가아니요 이만이천호 십일만륙천여누의약팔활이농산어촌생활자로서자작농어자가일활도불급하고 부채만으로 경세경녀하니 해가에 발권이오리오 자작자급과 근검절약의생계로서 이부채만버서나면 자연의 발권이올가 추상할뿐이다 목하 허황부동하는 외관의문명긔구만취하면 일시의발권으로 장래에는 부득이 피폐를초래할뿐이다오근고지신의 교회시설루서피동적발권을경계하고완갓불홋할발권주농자로자작농을 창정케하며 산어촌에도 자작자급케하야빗옭주리고부담을경감케하야농산어촌당업자로하야곰 재미잇는생계를 도모케함이제일완권한발권책일가한다



◇寫眞……韓東壁氏

謹賀新年

光州

全南光州 新舊書籍 各種雜誌 文具一切 光明堂 主 梁會信 電話三二九番

道廳食堂員一同

全羅南道農會

光州金曜會

全南光州 朝鮮料理 新光園 主 金鍾林 電五二六

全南光州 高光寅

光州邑北町 李鎭範

全南光州 鄭雲埰

全南光州 尹錫玄

全南昌平 喪中欠禮 高光表

光州邑本町五丁目 果物問屋 平壤商店

光州郡邑 池應鉉

全南光州本町五丁目 三山堂 劉演相 電話長六一一番

古西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光州邑本町四丁目 朝鮮料理 和順館

光州郡河南面長 朴準圭

光州郡極樂面長 朴夏鎰

光州邑弓町 明治屋洗濯所

光州邑本町五丁目 白川電氣工業所

光州邑本町五丁目 光進古物商

光州邑本町五丁目 金賞堂時計店

光州邑本町四丁目 綿紗布木 共益商會

光州邑明治町五丁目 新舊書籍 永昌商會

光州邑明治町四丁目 相信理髮館

全南光州邑明治町五 崔善鎭

全南光州 李範載

光州邑 宋和植

光州 李圭正

全南光州 池正宣

潭陽郡古西面長 高光奭

潭陽郡大德面雲岩里 金昌浩

全南光州 光華洋服店

光州邑本町四丁目 山梨水晶株式會社 南鮮營業所

光州邑大正町 具哲祐

全南光州 申樑

光州邑本町五丁目 和洋家具及諸貸業 孫鍾湜 電三〇五

光州邑北町一八二 鄭惠澤

光州開業醫師會員一同

全南光州 金炳宅

文藝

一九三三年에 잇서서 傾向作家라고 世界의興論에 한개의波紋을 이르킨『앙드레•지ㅣ드』亦是 그의 文學에對한態度는 佛蘭西의 傳統的形式에 愛着을 가지고 佛蘭西

『十七世紀』의古典主義作家에對하야 無限한感嘆과 尊敬을가지며 理性的 또는 知性的精神을 擁護하는者다 그러므로 그의 文學創作에잇서서特히文章에對한統制와 均衡과嚴格한形式美를 古典作家에게서배온것이다

그러므로 主知主義文學이라는것은 一便 古典精神ㅡ傳統ㅡ의發展과 다른 一便으로는 無限한感情의浪發과 個性의混亂을 制禦하는 知性의重大를 高調하는것이요 따라서

『現實生活』에 對하야 이知性으로서 그를觀察하고統制하고 分析하고 또는綜合하야 한개의文學을 創造하자는것이다 이것이 人間으로하여곰 現實에의追從 沒入에서 救出하야冷徹하는 知的觀察로 現實우에臨하라는 主知論이요 知識尊重이다 即 恒常流轉하는 이外界의現實에 對하야 知性의恒違性을 主張하는것이다 人類의歷史가 無限한變遷을 겪거왓스나 人類의文化란 오직 그知性의勝利에서 發達된것이요 歷史의過程우에 文化의蓄積이란 곳 이知性의蓄積이요 發達이라고 主張되다 이知性(理知)이

「文藝思潮」의 가장 重要한地位를 가지게된것은 佛文壇의寵兒 『마르셀•아를랑』의『知는 藝術作品에 必要한條件의 하나다 理知는 한作品을 作品이 안되는 못하나 淺感하는 以上의 더 崇高한 現實의 象徵이 되다 그理知는 宇宙 調和의 反映이다 그各各의 步調는 結果로 반드시 다음 새로운步調을내드되게한다 그는 精神의苦惱를 除去하지는못한다 그精神을 淨化하고 더熱烈한火焰을 불타게하는것이다」의 여기에서도 發見할수잇다

그러나 이러한 文藝思潮가 思想的으로는 『니ㅣ체』의研究를 다시旺盛식히고 特히

『佛蘭西와』가튼社會에서는『니ㅣ체』의研究뿐아니라『도스토이엡스키ㅣ』의 作家的研究가 다시 새로운活氣를 띄고잇다 이傾向이 世界大戰前의 文藝思潮에 復歸되는感을 느끼는 것은 이가운데 亦是 暗暗히 非常時를 알군 文藝思想家ㅡ即 인텔리겐차ㅣ의思想的 又는 藝術的模索의 同一한 苦悶相을 發見케되는 理由가아닐까?

然而「佛蘭西」그들의한 比較的自由主義의旺盛

『共和精神』은伊太利의파쇼化와도 달리 또 獨逸의 나치스化와도 달리 思想的自由의苦悶中에서 이非常時의 寒國氣속에서 生活하는것이다 그럼으로 가지가지의 思想的諸流派가 政治的寬容下에서 叢立하고잇서서 一九三三年의 文藝思潮우에는 特히注目할두가지 記憶할事實이 일어낫다 그하나는「앙드레지ㅣ드」의轉向이다 그의 이轉向은 政治的關心에서나온바 이社會制度否認의 積極的態度는 勿論아니다 그보담도그自身의 精神的의進展이

『支配階級』의宗敎와資本主義와의 結托에對한憎惡를 느끼게하야 드되여 소비에트 로서아를 새로운人間創造의 理想社會로 認識케되것이다 이러한 公公然한 共産主義禮讃을 그대로 容認하는

그다음 佛文壇의 文藝思想의 老大家로 認定밧는『줄리앙 방다』가 一九三三年六月 「歐羅巴國民에告함」이라는

『評論集은』 發行하야 相當한輿論을 이르키고잇다 이叢書에서 「방다」는 思想的으로 「맑스」와「헤-겔」과 「벨그손」들을 論難하야 「폴라톤」의 形而上學을 支持하며 政治形態로는 共産的 政體와파쇼國과 民族主義를 背擊하고 歐羅巴의 聯合된 한「羅帝國」의 建設을 讓言하엿다 그리하야 마치 中世紀以後의歐羅巴를 神聖羅馬帝國이 統一함과가티 歐羅巴는 다시統一될것이요 또이世界에 神이再臨하는 時期가 올것이다 라고 말하엿다그리고또「그未來의 歐羅巴란 文學的이라기보담은 科學的이요 藝術的이라기보담은

『理知的이』요 繪畵的 이라기보담은 哲學的이라고 하엿다 隣邦의 獨逸에서는 나치스의 國粹的運動이 熾烈함에反하야 佛蘭西에서는 이러한 自由思想家의種種相을 發見함은 一의奇異라고 안할수업다 그러나이非常時的氣分이 터욱險惡化한다면 即共和的自由國인佛蘭西가 國家的危機에 遭遇된다면 어떠한 文藝政策乃至 文藝潮流가 發生할것인가? 이런點에서 佛蘭西나英國에는 非常時的氣分이 文壇乃至思想全體에 根本的動搖와 崩壞에까지 이르지안엇다고보는것도 一面의眞理가 잇지안을까?

黑人文學 (五)

니그로文學의 成長

……韓雪野……

그러나 主는 한마듸말도하지안엇다

그들은우리主를

十字架 에못박앗다

그러나主는 한마듸말도하지안앗다

한마듸도 한마듸도한마듸도

(下略)

그러나 그들은 누구보다도 勤實히勞働하는사람들이엇다。 따라서勞働하는모든 사람에게 共通된 그生活感情의 反映이 勞働歌로表現되엇섯다。 그것은 原始的、自然發生的것이면서도 그日常的인 勞働生活의 어즘이滿露되고잇다。「존•헨리」라는 勞働歌를보면

이것이 함머ㅣ다

존•헨리ㅣ를 죽엿다、

그를내려죽엿다、그를내려죽엿다。

나의남편의골수를때려부셧다、오ㅣ사람의머리를、오ㅣ사람의머리를、

가난한사람이 「돈」 그것을 원망하듯이이노래도다만사람속익마치」를 呪咀하는데끈치는 淺見과無知를剔하고잇고 또形式도 人工的

理智的 인形態의美貌이 우리만치 洗練되지못하엿건만 그敍述的인 簡潔하고 和律과 押韻은 文化的인스타일이며稀念의高尙한 韻律로부터 放縱되어清新한原始性을보여주고 그는朴固의『奮伸曉』舞蹈想케 하고 그演發的인强烈한부르지짐은 놀리운사람의가슴을치고弱한사람의生命을 울닷케한다

째스에잇서서는 그文郞ㅡ時히時에잇서서보다 그들「니그로」의 精力이 더욱 壓倒的으로 豐富히滿溢되고잇다。그精力은 眞로生理的力學의頂點에達하여잇다。勿論째스의本質이 全的으로「니그로」的은아니지만 그基本形이「니그로」의리즘으로부터의 派生物임은 論爭할 餘地가업다。아메리카에잇서서의 째스의 表現及袞態의 發展은 主로「니그로」의寄與에 依하는것이다 『靈歌』가「니그로」의

宗敎的 逃避의表現인것과가티 째스•리즘은 일은바「現世放棄」를助長식혓섯다 今日에잇서서는 그現世放棄가歐羅巴와米洲의 普遍的切望이되엿잇다 大戰以來 떤스는狂的으로化하엿다 무엇이든지 물고처지지안으면안되는 狂的男女에게 그狂的感情의出口를提供한것이 狂的、忘我의 떤스엿다 그들은 그들을 조으듯오는 달큼한 都瀜과 沈默의妄想으로 끄러가는 목은 阿片劑는 다시 바라지 안엇다 그들은 心身와苦痛에 지친마음에

技巧的 인 疲勞가 가저다주는逃避ㅡ即積極的이고 力學的이고 「電氣的인逃避의氣分을希求하야말지안엇고 心身消耗에서만安息을 가저다주는 그러한逃避를 要求하엿든것이다。 째스의 그歡喜的인狀態와 리즘이 그들의放縱한逃避中에서 더욱더狂的으로되면될수록 그것은그러한逃避를多分으로供給하엿다「니그로」에게잇서서째스를形成하는諧反的인리즘은그들의生命의本能的過剩의 能動的인再現인에지나지안는다 即「니그로」는 그마치精力이橫溢하엿든것이요 그것이

本能的 能動的으로 넘처흘너서 째스에狂的混亂을賦與하엿든것이다。아프리카本土의藝術은固定的이고, 에넬기ㅣ는節約되고, 그規範은 거진古典的인데反하야 米洲黑人의藝術이 感情의橫溢, 規格의意識的否定 慣習의輕蔑을 그時色으로하고잇는까닭은 米洲에잇서서의「니그로」의生活의性質로부터오는것이다。

土耳其의再生(1) 昨年에土耳其의 文物을若干紹介하엿지만 共和國의憲法이發布된지 十有餘年에장차는 土耳其는새로히 이러낫다 (寫眞은土耳其女子의 美術方面進出)

故鄕 [39]

李箕永 作 安夕影 畵

七、출세담(出世談)

안승학은 원래 이고을놉내에서 사럿다。지금부터 이십년전만해도 그는 다찌그러진 옴막사리에서、콩나물죽으로연명하든처지엿다。그러든사람이 오날은 수백석추수를하고 서울사는 민판서집 사음(舍音)까지 어더해서、이동리로 옴겨안진것이다。

그것은 안승학의 근본을아는사람은、누구나 놀낼만한일이엿다。그는 지체도업고 형세도업시 타관에서 떠드러온 사람이엿다。그럼으로 이고올에는그의 일가친척 이라고는 면서괴를단니는아우박게아모도 업다。그의부친은경긔도 죽산이라든가 어듸서 토방노릇을하든 아전이엿다는데 승학이가 설년이되기전에 죽고 그의모친도 부친이 별세한지 삼년만에 마저 세상을 떠나고마럿다한다그래서 거긔서는 살수가업스닛가 안해와 어린

독생하나를다리고 이곳으로드러왓다。읍내에는 그의처가가 사는터이엿다。

처가도 역시 가난하엿스나 그래도 처가의 꿋틀로 옹대가리나마 다시작만해노코 살님이라고 떠벌니엿다。

그런데 그무렵이마침 경부선이 개통한 직후엿다。 린근처사람들은 생전처음보는 긔차와 정거장과 전보때를보고 경이(驚異)의눈을 크게떳다。 안승학은 지금도 그때 목판차를 맨처음으로 먼저타고서 울들가보앗다는것을 자랑삼어 말하엿다 그때그는 엇던친구의 심부름으로 혼수흥정을하러따러간것이엿다。

그의자만(自慢)은 그것뿐만아니엿다。그는 경긔도축생이라고 이지방에서는 제얼 똑똑한체를 하엿다。

우편소가 새로생긴것을보고 이웃사람들은 그게무엇인지몰나서 겁을잔뜩 집어먹고잇섯다 장승가티 느런는 전보때에서는 노상 잉ㅡ하는 소리가들니엿다。그것은 귀신을잡어감은 사긔안에다 귀신을집어느어서 그런소리가난다는것이다。그리고 우편소안에는 무슨 이상한 긔계를 해안치고 거긔서는 무시로 괴상한소리가 들니엿다。그래서 이웃사람들은 그것도 무슨 귀신을 잡아느어서 그런소리가 들니는것이라고하엿다。

그럴때에 안승학은 이귀신을 부리는재조를 그들압에서 시험해보엿다 그는 엽서한장을사서 자긔집 동호수와 자긔일흠을쓰고 편지사연을써서 우편소안으로 집어느엇다。그리고 그들에게 장담하기를이것이 오날해전안에、우리집으로 드러갈터이니、가보자는것이엿다。

파연、그날저녁때ㅡ지우사자가른 누렁옷을입은 사람은 안승학의집에、엽서한장을 던지고갓다。

「참! 조화속이다!」

하고、그들은 입시에 소리를 질넛다。ㅡ

비행긔가、잠자리처럼 날느고、인조인간이 발녕될 지금세상에서 이런소리를 드르면 누구나 코우슴을치리라마는、그때시절에는 사실로 그러하엿다。말하자면、그때무렵에、안승학은、이고을에서、우편으로보내는 편지를 제일먼저써본이중에도 한사람이엿든 위대한 선각자엿다。

그럼으로그는 그이듬해봄에 새로 설립한 사립학교에도자긔가 선등으로 입학을하엿다 말는 학생이라 하지만은 아들춘추가 근사십이나되는 아들손자를 거느린사람도 잇섯고 쇠뿔관을 쓰고온 사람도잇섯고、초립동이、상투 꼬부랑이 머리를 따느린총각도잇섯다。 그때 안승학은 모친의상중이라、북포망건에 방갓을 쓰고 다녓다。

이러한 십인십색의 학생들이 축둘너안저서、

『アナタハ トナタデスカ』

『당신은 뉘댁이십닛가』

『ワタクシハリショボウデス』(李書房)

『나는 리서방이올시다』

하는、일본말을、한눈서당에서 논어、맹자、읽듯하고 잇섯다

안승학은 잇해만에 이학교를 졸업하고나서、그는바로군청으로 드러갓다。

그는 물론、일본말을 잘할뿐아니라、생활의 악다른사정은、다만 한푼버리라도 하지안으면 안되기때문에、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고원』이라도드러갈수박게 업섯든것이다。

그는 이러케 남먼저 개화를 하엿다。

말하자면、이것이、그의출세의첫거름이엿다。

謹賀新年

長箭

外金剛長箭港 濟東病院 崔圭河

外金剛長箭港 新北面事務所

外金剛長箭港 長箭酒造組合 柳重玉

外金剛長箭港 鄭民澤

外金剛長箭港 永益商會 崔永福

外金剛長箭港 金剛釀造所 金斗益

外金剛長箭港 江原道漁業組合聯合會

外金剛長箭港 長箭漁業組合

外金剛長箭港 肥料製造業 黃雲天

外金剛長箭港 肥料製造業 崔燦鉉

金剛山羊牧場 金鐸

外金剛長箭港 永樂舘 趙元明

外金剛長箭港 運送店 崔寬旭

外金剛長箭港 長箭郵便所 土田銳實

外金剛長箭港 元山舘 李昌淑

外金剛長箭港 一心商店 張仁杰

外金剛長箭港 精米業 劉馹俊

外金剛長箭港 大賀鐵工所 劉琪碩

外金剛長箭港 金貞浩

外金剛長箭港 長箭飮食店組合

外金剛長箭港 銀河理髮舘 金圭煥

外金剛長箭港 大興堂時計店 玄乃順

外金剛長箭港 米穀商店 朴日洵

外金剛長箭港 元山洋服店 金榮秀

外金剛長箭港 長箭牛車組合

外金剛長箭港 寫眞業 白雲鶴

外金剛長箭港 金剛堂看板店 池炳斗

外金剛長箭港 藥種商 醫業 徐鍾麟

外金剛長箭港 製菓業 盧仁新

江原道高城邑 高城郡教育會

江原道高城邑 元山救世病院高城分院 白永祚

江原道高城邑 高城酒造株式會社

外金剛長箭港 肥料製造業 叟相孝

外金剛長箭港 肥料製造業 金秉連

外金剛長箭港 肥料製造業 金泰洙

外金剛長箭港 肥料製造業 朴萬年

外金剛長箭港 肥料製造業 李聖恒

安州

朝鮮平安南道安州 綿絲布 雜貨 卸商 久田茂壽商店 電話 長一一七番 振替口座京城一二一一 電信略號(ヒ)又ハ(ヒサ)

安州信義里 金秉奎

雲谷面 獨山面職員一同

雲谷面 保安組合

安州無名會

七星里 名妓 朴江山月

朴毅錫

安州 正直屋 電話一八番

月星材木商會 崔獻晃

合名商會 李茂永

名妓 韓明玉

寧邊郡獨山面修隅里 朴昌龍

寧邊郡獨山面 車弘均

安州天主教會

安州邑 同仁醫院 公醫 池萬根

安州邑兩灣里 金鎭堯

安州 平安醫院

鐵山面院興洞 永思夜學

寧邊郡獨山面 金箕源

東亞印刷所 林鍾方

朝鮮安州 藤村恒三商店 振替口座京城一〇六三 電話三三

洪原

咸南洪原邑 圓卓會一同

咸南洪原邑 洪原釀酒場

洪原前津港 海産業 朴東奎

咸南洪原邑 洪原精米所

咸南洪原邑 洪原醫院 李鍾述

長連

殷栗郡教育會

殷栗郡廳職員一同

黃海道長連邑 綢緞布木 和洋百貨 石油官鹽 各種肥料 田林商會

殷栗郡長連邑 李鳳儀

黃海道長連邑 林宗鎬 金鼎三 申禧均

黃海道長連邑 盧正三

殷栗郡北部面 協議員 邊益相 有志 洪宗基

殷栗郡北部面事務所 面長 景元一 外 職員一同

朝鮮商事株式會社 安州出張所 主任 車錫俊

李花仙

金花月

安州邑 洪禹疇

七星里 平南齒科醫院

咸鏡線前津驛前 內鮮運輸株式會社

洪原前津港 海産業 李鍾吉

前津驛前 前津代行所

洪原前津港 海産業 新川綾太郞

殷栗郡北部面 收放學陝 洪德義

殷栗郡北部面 有志 景元五 協議員 安麟燁 有志 金桂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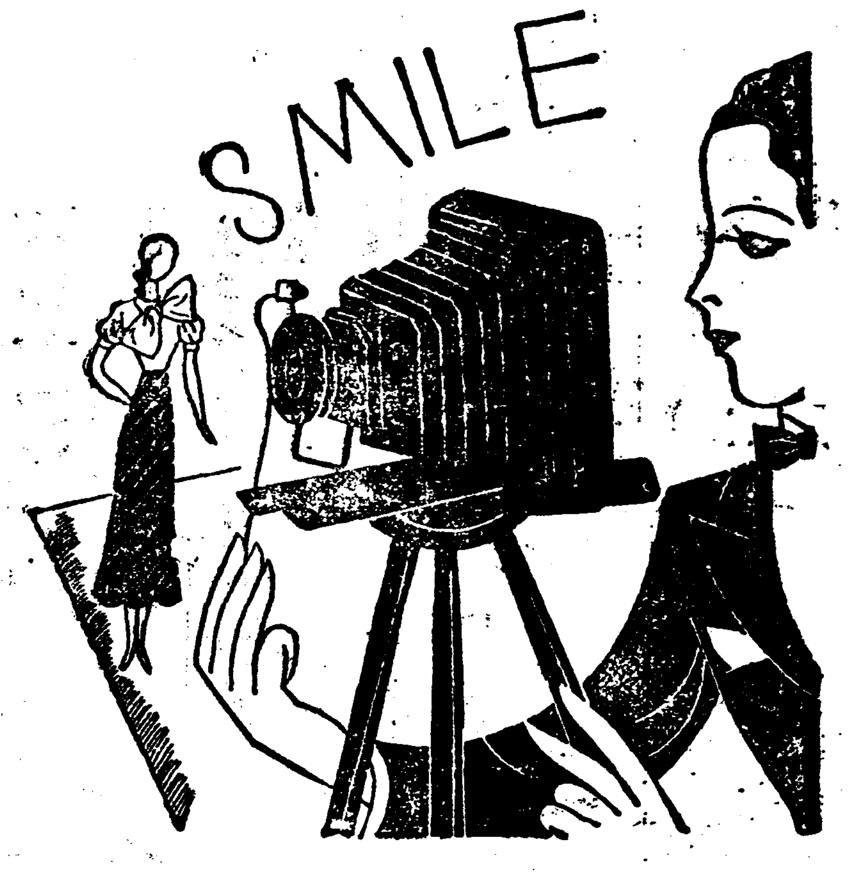
殷栗郡金山浦 富田鑛業所

長連金融組合 理事 安處瑛

長連面事務所 長連郵便所

朝鮮日報長連支局 支局長 白賢準

近代生活에潑剌케
뛰는强한눈이여!
아름다운눈이여!
美와力의光彩
는이一滴에서
放射되는것이다!



完全한美로

아모리臙脂와白粉과美服
으로꿈인다하야도——
中心을이즌美粧은슯흔것이오
美의中心——瞳子——를메——키압
푸한後당신의完全한美를映像
식힐것입니다

紫外線을避하라

日光은기쁨과따러서眼의
災禍도가저오게됩니다……
스포ー츠의敏速、散步의快適은
直射日光과塵埃에서 眼을保護
하여서만입니다。핸드빽、포켓
트에、一本의、스마이루!

밝은知識의窓

恒常淸澄한頭腦는恒常밝
은瞳子에서나온다……
書齋에서스마이루의一滴、視神
經의疲勞는迅速히 回復되며活
字는다시 整然히淸澄하야진窓
에서頭腦에흘러드러감니다

事務室、工場에서

數字의堆積、計算의氾濫
細密한圖形、器械……
더욱、喧噪、煤烟、塵埃이오
스마이루에依하야、事務家와
技師의能率은二倍에、神經의
疲勞는二分之一로되겟지요

스마이루는舊來의目藥
에서斷然一步압서

眼疾을快히治療
할뿐아니라——
强烈한光線에依한
障害를防止하고——
視神經의疲勞를快
適으로回復하며——
强한視力과魅力에빗
나는瞳子를만드는——
가장合理的인新時
代의高級眼科藥!

有名藥店에잇슴・二五錢・四五錢・壹圓
自働式點眼裝置의스마ー트한容器

本舖
玉置合名會社
東京市日本橋區本町一・振替東京七二番

스마이루렌드의會員을募集
映畵•레뷰ー•文學等을새로운이야기와아름
다운寫眞을滿載한月刊冊子를贈呈합니다仔
細힘은二錢切手封入하야本舖로申込하시오

8-03

謹賀新年

淸安

槐山郡曾坪面松山里 松峙進興會

槐山郡沙梨面水泳所 禹鍾國 池永權 權泰星 尹濟榮 李昌基 禹鍾昇 李愚定

槐山郡曾坪面松山里 顏子山振興會

忠北線淸安驛前 鮮一洋服店

忠北線淸安驛前 曾坪消防組組頭 荒尾喜太郞

忠北線淸安驛前 曾坪 釀造組合

忠北線淸安驛前 有志 李殷壽

忠北線淸安驛前 朝鮮料理 新成館

忠北線淸安驛前 曾坪面職員一同

忠北線淸安驛前 錦業 朴昌圭

忠北淸安驛前 米穀貿易綢緞布木 任鳳彬

忠北線淸安驛前 金龜演 元容會

槐山郡曾坪面松山里 松山殖產組合

忠北線淸安驛前 京城昌永商店 金水根

忠北線道安驛前 染業 李庚周

忠北線淸安驛前 曾坪面長 李敎泳

忠北線淸安驛前 絲米穀商

忠北線淸安驛前 淸安農業倉庫

忠北淸安驛前 米穀商 李鍾璇

忠北淸安驛前 米穀 朴昌圭

商忠北淸安驛前 朝鮮料理 永樂館

忠北線淸安驛前 崔平國商店

忠北線淸安驛前 布木雜貨 天成永

忠北淸安驛前 綢緞布木和洋雜貨 永興商店 主崔鳳住

忠北淸安驛前 人蔘製藥丸本舖 天興藥房 禹顯基 禹浴

忠北淸安驛前 金永七

忠北線淸安驛前 遠南醫院 李獻魯

忠北線淸安驛前 亞島寫眞館 曹壽煥

忠北線淸安驛前 綢緞布木和洋雜貨 協濟商店 吳德遠

忠北線淸安驛前 曾坪區長 金顯國

忠北線淸安驛前 穀物商 劉章烈

忠北線淸安驛前 金明君

忠北線淸安驛前 華新洋服店 李炯南

忠北線淸安驛前 鍮業 崔壽永

忠北線淸安驛前 鍮業 李泌用

忠北線淸安驛前 彰新醫院 朴魯錫

忠北線淸安驛前 三山藥局 尹永泰

忠北線淸安驛前 米穀商 張基韓

忠北線淸安驛前 司法代書人 梁鉉澤

忠北線淸安驛前 李範雨

忠北線淸安驛前 曾坪院 白奉學

忠北線淸安驛前 孫聖謨商店 孫聖謨

槐山郡道安面石谷里 第一室

槐山郡道安面石谷里 第二室

槐山郡道安面石谷里 第三室

道安面石谷里 振興會

道安面石谷里 振興會會長 李起淳

忠北線淸安驛前 司法代書人 朴瑛東

槐山郡道安面道塘里 靑年團長 延臺熙

忠北線道安驛前 韓舜基 池柄政

忠北線道安驛前 道安理髮館 李明福

忠北線道安驛前 道安面職員一同

槐山郡淸安面邑內里 洗炳醫院 姜大應

忠北線淸安驛前 金學圭

忠北線淸安驛前 三星社釀造場

槐山郡沙梨面中興里 有志 洪鍾聲

槐山郡沙梨面中興里 有志 柳福星

槐山郡沙梨面中興里 有志 柳寅學

槐山郡七星面 面長 沈鍾冕 會計 許憲

槐山郡七星面 長春社釀造場 金德鉄

槐山邑東部 東一釀造場 朴根陽

槐山郡文光面 金弘基

槐山郡淸安面邑內里 靑年團副團長 李松得

槐山郡淸安面孝根里 有志 尹柱寅

槐山郡淸安面邑內里 有志 金德勳

槐山郡淸安面錫新里 金學奎

槐山郡淸安面邑內里 有志 曺漢翼

槐山郡曾坪面連灘里 區長 李復圭

槐山郡曾坪面龍江里 鍮業 安錫宗

槐山郡曾坪面龍江里 面協議員 張鉉宗

槐山郡曾坪面松山里 振興會副會長 池合夏

槐山郡曾坪面德祥里 有志 金主奉

槐山郡曾坪面松山里 區長 朴來應

槐山郡曾坪面松山里 沙谷振興會

槐山郡曾坪面松山里 沙谷婦人團

槐山郡曾坪面松山里 沙谷靑年團

槐山郡曾坪面松山里 顏子山振興會長 陳炳順

槐山郡曾坪面連灘里 有志 延龍熙

槐山郡曾坪面松山里 顏子山靑年團

槐山郡沙梨面梨谷里 李濟德

槐山郡鳳鶴山普光寺 成霽月行

槐山郡松山里 有志 李根奭

槐山郡曾坪面松山里 松山靑年團

槐山郡曾坪面松山里 沙谷靑年團長 池昌鎬

槐山郡曾坪面松山里 沙谷振興會長 池永鑽

鎭海

鎭海邑 東洋製絲株式會社鎭海工場

鎭海金融組合

鎭海第一金融組合

釜山商業銀行鎭海支店

馬山無盡會社鎭海支店

昌原郡熊川 海山醫院 院長 金顯謨

鎭海酒造株式會社 電話一八九

昌原郡熊東面 海山醫院馬川分院 分院長 金顯奎

昌原郡上南面佛母山 聖住寺

鎭海邑 鎭海漁業組合 電話二〇一

鎭海邑 野崎常藏

鎭海公立普通學校

鎭海公立高等女學校

鎭海公立尋常小學校

慶和公立尋常小學校

鎭海邑 邑長 金時煥

鎭海戊辰會

鎭海邑慶和洞 弘文堂石版印刷所 主魚達佑

昌原郡熊川面明洞 明洞酒造場 李在浩

鎭海邑慶和洞 裵奉時

鎭海邑大手通 米穀商 劉昌鎬

昌原郡熊東面□□里 雜貨商 崔太鳳

鎭海邑要 駒宮庄三郞

鎭海邑慶和洞 米穀商 李性培

鎭海邑將川里 米穀仲介業 朱富用

鎭海邑慶和洞 綢緞布木商 張命道

鎭海邑慶和洞 綢緞布木商 崔南岐 電話一〇二

鎭海邑慶和洞 彭基定

昌原郡天加面訥次里 訥次漁業組合理事 崔敏洙

昌原郡熊東面大壯里 面協議員 裵健守

鎭海邑豊湖里 文崎鼎

昌原郡熊川 鎭海病院熊川分院長 金鍾述

昌原郡熊川面 面協議員 林桂守

鎭海邑慶和洞 崔鶴阜

鎭海邑自隱里 申二滿

鎭海邑巴町 富士屋洋服店 黃致明 (電話二〇六)

鎭海邑豊湖里 彭時柱

鎭海邑慶和洞 生絲及絹織物製造販賣 裵相用

鎭海邑慶和洞 雜貨商 趙又用德

鎭海邑慶和洞 米穀生絲絹織物製造販賣 全化碩

鎭海邑慶和洞 貨商鋪 鄭吉斗

鎭海邑慶和洞 東岩藥房 主崔永烈

鎭海邑慶和洞 藥種商 李起謹

鎭海邑慶和洞 雜貨商 金應福

鎭海邑慶和洞 綢緞布木商 都三述

昌原郡熊東面 馬川酒造場

鎭海邑慶和洞 具在衡

鎭海邑慶和洞 米穀布木商 李德守

張億守洋服店

昌原郡熊川面三浦里 金正龍

昌原郡熊川城內 鄭昌允

鎭海邑豊湖里 朴秀文

鎭海邑豊湖里 金泰洙

鎭海邑大平通 李濼儀

鎭海邑 金庚述

鎭海邑泥湖里 金鎭錫

鎭海邑泥湖里 高守滿

鎭海邑將川里 裵斗熙

鎭海邑將川里 周時奉

鎭海邑德山里 崔金述

鎭海邑德山里 文龍珠

鎭海邑慶和洞 李再能

鎭海邑慶和洞 禹容述

鎭海邑慶和洞 禹慶相

鎭海邑慶和洞 洪承達

鎭海邑慶和洞 李福根

鎭海邑慶和洞 朱基守

鎭海邑慶和洞 藥種商 甘大植

鎭海邑慶和洞 田元石

鎭海邑慶和洞 宋世煥

鎭海邑慶和洞 嚴斗燮

鎭海邑慶和洞 盧守福

鎭海邑將川里 裵永奎

鎭海邑慶和洞 禹敬柱

鎭海邑慶和洞 朴漢德

鎭海邑慶和洞 朴俊元

盈德

盈德改良麯子組合

盈德酒造株式會社

盈德電氣株式會社

平海酒造株式會社

慶北江口港 神文藥酒燒酒 文明燒酒藥酒 江口酒造合資會社 電話一一番

江原道原州郡文幕市 平壤冷麵屋 李君瑞

慶北盈德郡知品面午泉金鑛 鑛主 洪煉基

江原道原州郡文幕市 穀物貿易委託賣買 崔泰煥

柄谷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知品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南亭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丑山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江原道原州郡文幕市 文幕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慶北盈德郡長沙市 鮮魚製造及貿易商 德義洋行

烏保漁業組合 組合長 金應千 理事 鄭臣煥 外職員一同

南亭面長 申杓運

知品面長 金炯瓚

蒼水面長 李洛鉉

三思東明學院 院長 權泰晟 書記 崔順得 後援會長 朴海文

濟信醫院 鄭國

慶北盈德邑 寓岩脚氣藥本舖 李花回春堂藥舘

江原道原州郡文幕市 文幕金融組合 理事 田窪秀一

黑橋

京義線黑橋驛前 農民共生組合 金明錫

京義線黑橋驛前 常信洋服店 李鳳洙

京義線黑橋驛前 三合釀造商會 朴永燮

京義線黑橋驛前 黑橋面事務所職員一同

黃海道黃州郡天柱面內東里 天柱面事務所職員一同

黃海道黃州郡淸水面三街浦市 淸水面事務所職員一同

黃海道黃州郡黑橋面黑橋市 仁濟醫院 鄭濬述

原州

江原道原州郡建登面事務所職員一同

江原道原州郡文幕市 泰陸商會 主趙慶善

江原道原州郡文幕市 文幕土地改良契職員一同

新春劈頭부터 教會內紛糾勃發

教徒教會廓清絕叫

◇平壤倉洞教會의不祥事◇

【平壤】 신춘벽두인삼일오후 평양부내 장로파창동교회(倉洞教會)에서는삼일기도회로 남녀교인 사백여명이집합하여 김치국(金振國)조사의 사회로 례배가 시작되라는순간 예교회의 자본주의화와 팟쇼화의 반대를 부르짓는교도이백여명이 김전국조사를 성단에서 끄러내린후 성명서를 랑독하엿고계속하여 청년교도중 수명이 교회 교역자의 부패한장면을여실히폭로 하는연설을하여 만장한교도의 박수환호를 바덧고따러서 삼일례배회는 수라장화하고 만사실이 돌발햇다

성명서의 내용을 들어본다면창동교회는 창립이후 수십년간화괴만장한 가운데에서 교세대진하엿섯스나 최근수년간은 동교회장로리춘섭(李春燮)씨의자본주의적 독재세력이 교회의신성을 여지업시파괴하엿고 이에부회뢰동하는 장로이,삼명이전횡을마음대로하여 작춘에는 교인들이 극히신앙하는 동교회전무목사리인식(李仁植)씨를자긔마음에 안맛는다고 독단축출한것을 필두로 최근에는사이가조치못하든장로리진방(李鎭邦)씨의아들이 불신자인 녀성과연애결혼을 하엿다는 아조몽롱한 구실하에서 당장에 파문선고를하는등 실로 교회의신성과 위신을모독하는 순감정적 행동이극히만타하여 일반교도 들의물의과 원망이컷섯는데 리춘섭장로의 직계파인김신모(金信模)장로가 비신앙적 결혼을햇다는것과 비도덕적 언동을햇다는것이 도화선이되여 불평은일시에폭발이되고 만것이다 동문제는금후 상당히파난 분규를계속할모양으로 금후극히 주목되는터이며 려、강령장로를 교회에서완전히 축출하기까지 교회혁청파에서는 투쟁을 계속할모양임으로 금후의귀추는 가일층주목되는터인바 긔독교 왕국평양시내교반에 크나큰 충동을일으키고엿다 더욱어 교회가 자본주의화하고 팟쇼화함을 반대로 교회안에분규가 일어난것은 이것이 효시인만큼 더욱 큰 『쇼크』를주고잇다

雇傭女에게暴行

被害者告訴提起

【淸州】 청도대실면고수동잔재서(秦鉉爾)(假名)는 여러 김모의소개로 지난이십일 당녀십사세된소녀 구분실(具分實)(假名)(一四)을 집안 고용인으로 정하얏다가 하로지난 그의일밤오후십시경에 구분실을 침실에불러자게하고 긔긔진모가 불의에달려들어 강간한사실이 잇서는데 피해자측에서는 그후수삼일을지난후 고소를 제긔하게되자 진모는 발서자취를 감주고목하행방불명이 되여잇다고하다

連日降雪로서 生活戰線大異狀

流離、缺食者續出

【海州】 작년십이월하순부터 오기시작한 눈외 이래쉬지안코 지금까지 계속하고잇는데 그결과로는 매일노동하야 생활하는 사람 나날이나무를산에서 하여팔든 세민층(細民層)에서는 대곤경이라하며특히수북면(水北面)월산면(月山面)등지에 잇는 촌민들은 류리걸식하는자가 늘어간다고한다

治水工事場土工 人夫貯金編取

【大田】 연기군금남면두만리(燕岐郡錦南面斗滿里)에본적을둔 고택만(高澤滿)(三二)은 연기서면 치수공사장(治水工事場)에서 토공(土工)으로 종사하며 그공장에서 열하는 인부김화신(金化信)외 두사람이 피와땀을 흘녀가며 근근히 모아저금한돈을 금년십월십구일부터 십일월이십일일까지 전후 네번이나도장과 문서를위조하야 사십삼원사십전을 편취하여가지고 어듸로인지 종적을감추어 버리엇슴으로 경찰당국에서 목하범인을 사방으로엄탐중에 잇다한다

面民無誠意로 普校認可遲延

【長城】 전남장성군에는십이면중에 보통학교가 삼일개공오남년(?面)만이학교가잇슴을 유감으로안 당국에서는 전남도청에루차 교섭한결과 보조금을 엇게되고 부국에삼천원는 면민에게부담케 됨으로 면당국에서는군당국과 타협한후 면민에게 긔부금의 승락을어더 면당국자들은긔부금 증수에 로력하는중이나 면민들이 잘내지한는관계로 인하야 오는사월월까지에 인가문제가 의문임으로 면당국자들은고심중에잇다고한다

陰城記者團 臨時總會

【陰城】 충북음성(陰城)긔자단은 작년십이월 삼십일일당지경찰관에서그림시총회를개최하고 제반사항을토의 한후예쭉호로이여서 망년회를 열어대성황을 이루엇다는데 참석 인파토의사항은다음 갓다고한다

朝鮮 吳周泳 張鉉璉
東亞 吳興善
朝鮮中央 鄭鍾祐
朝鮮每日 金鍾烈

討議事項

一、任員改選 庶務會計委任金鍾烈
一、新聞代回收策… 手續은記者團에一任할것
一、同一歷線에步調로갈것

二十歲美女凍死

【平壤】 삼일오전십일시부내경상리(慶上里)팔십이번지진흥양말공장(振興洋襪工場)압에서 이십일이세즘되여보히는녀자가 미녀의 동사체가 발견되엿다그는 주소성명도 알수업는행려병자로 판명되여 부에인도되엿다한다

農家의八五%가 高利債에呻吟

◇楊平農民의窮乏相

【楊平】 경긔도양평에잇는양평금융조합에 서는 금융조합의한사업으로 고리부채로우는 농촌을 구하겟다는 표방아래부채정리를하고잇스나 그혜택을 입는자 극히소수로 그철저한정리는 기대키 매우어려운모양으로 농촌빈농대중은 고리 채권마의손에서 헤어날수업는 현상인바 양평금조에서 고리채정리의 참고로 하기위하야서 동군내에서 갈산면도곡리(葛山面道谷里)갈마(馬)라는 부락과 동군강상면 병산리(江上面屛山里)의안지울이라는 부락파의두부락의부채와 호수를 조사한바에의하면 상긔 갈마부락의 총호수는이십칠호로 고리부채를 진호수는무려 견호수의팔할오분인 이십삼호나되고 강상면 안지울은호수삼십사호에 부채호수 이십일호로부채액은 무려 일천칠백십육원에나 달하는데 평균부채액은 매호 팔십일원이나되는바 갈마부락은 아조 어려운사랑을 대표하고 다음 안지울은종나는 부락을대표하는 양평농촌의 표본으로 이것을미루어 얼마나 농촌의 피폐상이 심각한것을넉넉이 엿볼수잇는 것이라고한다

海苔大凶產으로 五千住民大恐慌

男負女戴로續續流離

【長淵】 석진경(錫津庚)와종점에 가로막혀잇는 갈사도(葛四島)에다사무소를둔 한동해태조합(河東海苔組合)의 조합원팔백여호의 오천여명은 매년해태로인하야 이삼십만원의 다액을 산출하야오든바 근래수년간을 련하야흉작이 되엇스며금년의대폭풍우로 인하야 농작물은 반이상 감소되고 해태까지흉년을당하여 수천주민은 창극로대공황가운데 잇는데 날이갈사록 그정도가 심하야 류리민이속출하고잇는현상이라고한다

장구절青年團 消費組合設置

【陰城】 충북음성군소이면후마리(陰城郡蘇伊面厚美里)장구실에서는 중견청년인류정희(柳錫義)씨의노력으로 작년도에청년단을조직하고 제일먼저 금주단연을철저히 실행하여 매우량호한성적을보이엇스며생활개선과 풍속개량에진력을 하여오든중 엄마전에동단의 긔본재산을 가지고 소비조합을창립하고 일용품을구매하여전동사십이호에 배급한다는대 장날에는 장터에 출입을금하며 혹히원중 에서다른곳에가서 현금으로 구입하는 사람이잇스면 단규에의하야 위약금을증수하야생활개선을도모하고잇다고한다

金鍾畯氏特志

【雄基】 웅긔시내웅일학원(雄一學院)은 웅긔로동련합회(雄基勞働聯合會)의경영으로 현재남녀아동삼백여명을 수용하고 이래근근히 유지하여 오든바 금동에와서는 경제의 봉경긔가 이학원에까지 밋치여 때때로스토-브를 피우지못하고 아동들이며 직원일동이산에 올나 나무를하여다가 불을피우고 치위를 견듸며공부를하든바 이소문을들은 시내유지김종준(金鍾畯)씨는 지난달 이십오일에 석탄한돈을 긔증하엿다한다

地方人事

▲朴麟周氏(批峴金組永山支部理事)就任人事次本社義州支局來訪
▲久德敏一氏(龍灣金融組合理事)嶺美組合轉勤人事次本報義州支局來訪
▲金壽天氏(醫師)今般白川邑宗路에서一月一日부터白川醫院이란看板으로開業

嬰兒壓殺事件에 헛물켠平壤警察

解剖結果腦溢血로判明

新年劈頭부터의넌센스

【平壤】 선춘벽두에혓영아살해사건으로 경관의신경을 날카롭게한사건이잇섯다 이일 아츰 부내수정(壽町)산파 조천춘자(早川春子)(假名)란일본인녀자의집에서 고용으로잇든 역시일본인인산본등자(山本燈子)(二六)(假名)는옥가튼사내를나어곳죽고말엇는데 동녀는 남편도업는데 아이를나엇슴으로 의심되여 물의의자식임으로살해하엿다고 혐소문이돌아평양서에서는영아시체를 해부에부치고 엄중수사한결과죽은원인은뇌일혈(腦溢血)로판명되엿다한다

今日의라디오

一月六日(土曜)

第二放送 (波長四九二米)

◇午後○時五分 南道雜歌
一、短歌
二、春字백이
三、자진六字백이
四、愚打鈴
五、개고리打鈴
尹玉香 李錦紅

◇同六時 兒童劇 文天祥 二場 水下洞公立普通學校五男兒童 指揮 李秉慶

◇同六時二五分 新春講演(六) 新年과努力 金東成

◇同七時三〇分 京城立唱
一、놀 양
二、압산打鈴
三、뒷산打鈴
蘇完俊 韓仁學 韓寶銘 李正云

◇同八時 레코-드音樂(管絃樂) 未完成交響樂
第一樂章 알레그로·모데라-토
第二樂章 안단테·콘·모-토

◇同 八時三〇分 流行歌
一、젊은날…北原白秋作詞 佐佐木俊一作曲
二、水夫의노래…金岸曙作詞 金潡際作曲
三、오동꽃…李孤帆作詞 全壽麟作曲
四、서울小夜曲…金岸曙作詞 張翼珍作曲
五、雪月夜曲…빅타文藝部編曲 孫馬夫作詞
六、뒷업는녀자최…李孤帆作詞 全壽麟作曲
바이올린 崔南鏞 全壽麟
클라리넷 金潡際

◇同 九時○分 連續古談 春電春(三) 朴寅成

第一放送 (波長三三三米) 田中會社中

◇午後○時五分 歌舞伎模擬芝居噺子
第一、吉例壽曾我之對面
第二、夜討曾我狩場之曙
第三、東引杜頭之場
第四、宮噺子行列三重
杵屋榮造 田中傳兵衛 田中兵次郎 田中兵太郎 杵屋辰枝

◇同二時五〇分 ラグビー試合實況 高專ラグビー—映—花園グラウンドより中繼—

◇同六時二五分 長唄 二つ巴 遊興は花の夕 本懷は雪の旦

◇同八時 (東)琵琶 榎本芝水

◇同八時三〇分 (東)小唄
一、(イ)松の緑 (ロ)梅け香を (ハ)春風がそう香り (ニ)とり陰がちらちら (ホ)舟ぢゃ寒から
唄 小奈美 三味線 堀 小多満
二、(イ)あけぼの (ロ)うぐひす (ハ)いつしかに (ニ)梅け枝さん (ホ)七福神
唄 金子 千壽子 三味線 金子 千代吉

懸賞當選小說 暴風雨지난後【六】

李巴村 作
熊超 畵

편지(3)

저순은 방문을열고들어오자 저애를못들고 한참을엇다。정애는 여래까지찾엇든우통을마옴껏소다노핫다。

『언니!난 언니만밋고살어』

하는 정애는 코커를들어 정순의얼골을향하얏다。

그것은 맛치 자긔눈으로정순의얼골을보는듯햇다。

정순은 사랑방으로 강박사를안내하고 영애는 저애와가티 안방으로 데려보냇다。

강박사는 정순의권유로 양복저고리를걸어서 못에걸고피곤한듯이 주저안젓다。

『편 시장하실텐데요』

하고 정순은 검보어머니를 불러서 밥을지으라고햇다。강박사는 『처만에요』하면서 두어번 사양하엿스나 배가곱호지안흘리가업섯다。

다른사람들과 이야기할때면 반듯이 아메리카이야기와 아울러 자기의 참담한 고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잘곳이업서서 공원에서 떨며잣느니 먹을것이업서 사흘 나흘을 굶으면서 공부햇느니 하고 눈물까지 글성글성하지만 기실은오늘처음이 생후처음으로 굶은것이다。

그러나 강박사에게는 지금 배고픈것은 둘재문제다。검보어머니가밥을짓고 그밥을먹고 먹은밥이다소간이래도 소화가되흔에라면 적어도 두시간이상을요할것이다。그러라면 그동안은저순이와、한가지이야기래도 더할수가잇다。이것이자긔가 정순이집에서 밥을지어먹고가는것은 대단 긴요한조건이되엿다。

『아씨 편지왓서요』

하고 검보어머니가 문을열고 이중봉투속에 들어잇는편지를 전하엿다。저순은 편지를밧드니피봉의안봉글 한번보고는얼골에우슴을띄우면서 뜨덧다。

강박사는 정순이의 만족해하는것이 의심이 난다는듯이 편지의피봉만이래도보려고에썻다。

편지를 읽고난 정순은 봉투에너헛다가 또다시끄내여보앗다。그는 자긔압해 손님이 안저잇다는것도이즌듯이 편지에만 정신이팔린모양이엿다。한참 읽다가는 얼골에우슴을띄고 한참보다가는 얼골에수심을띄우기를것갓햇한다

그동안이 강박사에게잇서서는 두시간 세시간이나지나가는듯햇다。

강박사는 정순이가 머리를숙이고 편지읽는동안에 저편쪽벽에걸려잇는그림을보는척하면서 정순의안존맵시와 머리와얼골과손을 마음대로볼수가잇섯다。아모리캐보아도 어엽버서못견될 미인이라고생각햇다。

새카만 머리털!그것은 천금을주고도밧구지못할보배갓텃다。더구나 그 머리털을통하야흘러오는 녀성의 향기이랴? 뽀얀 대리석의한토막을까거낸것가튼 코ㅅ잔등! 바로그우에 파리한마리가안저서가진작란을다하고잇다。마는 정순은 파리를날리려고도하지안코 편지읽기에만 열중되엿다

강박사는 그파리가 한업시부러웟다

그는 정순의 두빰을보앗다 붉으레한혈색과 조곰만다처도 터질듯한탄력—만일 강박사가 교양이업고 막된사람이라면 자기의 손ㅅ가락으로 정순의 두 뺨을 꽉—눌러보앗슬런지몰은다

강은다시 정순의목덜미를볼수가업는것이 유감이엿다 그러나 두어개념어로 치고잇는 처녀의파도 엇개미트로운팍을 그린 통통한 가슴 한잠 가느다란 허리가나려가다가 팍퍼진유체! 그것은 비록 두터운옷이가로막고잇엇으나 환상만하여도 알오로 쓰러질듯한것이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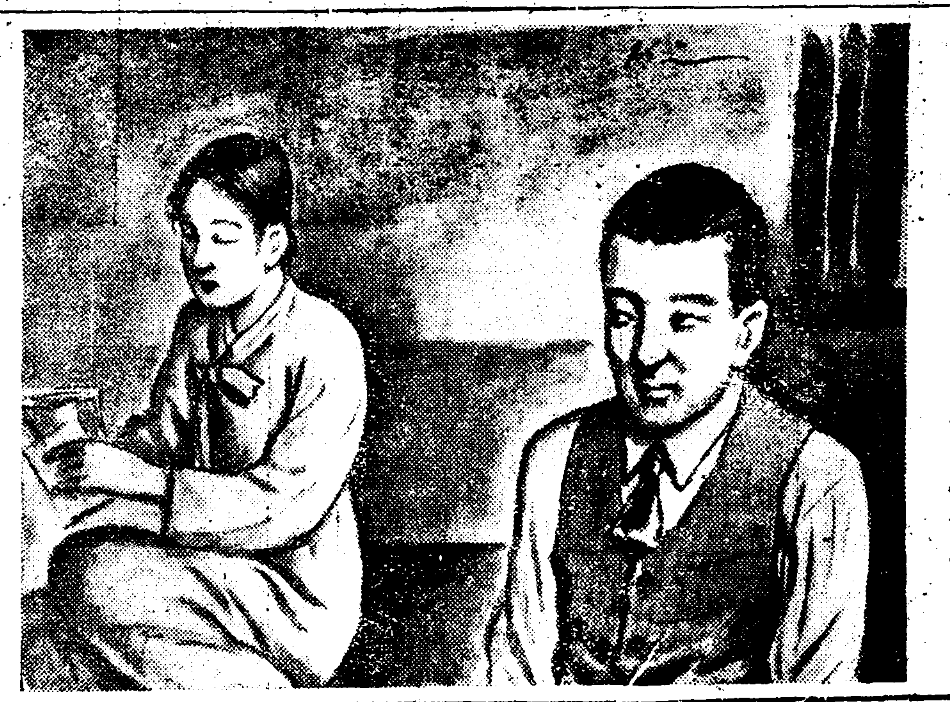
강박사는 정순의편지읽는것이 지리하다는생각이 최다업서지고 이와가티 자긔로하여금 정순을 마음껏바라볼수잇는시간이 영원히계속되고십헛다。

정순의 왼몸을 훌터볼수잇는 자기는 한업시 행복스러운사나히가티 생각되엿다。

『아이그머니 손님을아페두고!』

하면서 저순은 별안간 무슨 생각이낫는지 보고잇든편지를 집어너코 고개를들으면서 방긋우섯다。

별안간 정순이가 한소리는 강박사에게잇서서 마른하날에 나리는 벼락과갓햇다 그는깜짝놀내면서 시선의 컨부를다른곳으로돌려버렷다。



謹賀新年

三陟

三陟郡下長面楸洞 鑛業 李奉隨

奉化郡春陽面宜陽里 雲谷鑛山事務所 金在奎 三陟郡下長面楸洞

三陟郡下長面楸洞 楸洞鑛山事務所 宋得濂 俞泰興

三陟郡下長面葛田里 南田釀造所 南聲烈

下長面 下長面職員一同

北三面 北三面職員一同

未老面 未老面職員一同

蘆谷面 蘆谷面職員一同

合德

合德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新平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泛川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合德面事務所職員一同

合德面合德市 絹布穀物商 宋鳳源 醫生 劉亨烈 合德釀造場 雜貨商 金鍾爽 許勳 衡平社合德支部

合德面新興里 李喜完 金晶培 金允培

合德面合德市 雜貨商 義豊德 雜貨商 義增盛 雜貨商 公和東 雜貨商 義增永

新平面南山里 姜信九

合德市 尹福洙商店 吳仙業商店 韓鳳錫商店 李祀薰 高鶴煥 成元釀造場 權寧淳

北靑

北靑邑內 官公署一同

北靑邑內 德濟醫院 醫師 弓恩德 電話四七番

北靑邑內 汽車連絡乘合自動車業 咸一株式會社 社長 裵基述 電話一〇二番

北靑邑內 北靑電燈株式會社

北靑邑內 三星醫院 公醫 崔溶武

北靑邑內 各種自轉車販賣及修繕附屬品一式 丸成自轉車店 朴成春

北靑 購買部 韓宗禹

北靑邑內 松の精(營養の素) 不老長生 滋養强壯 本舖 帝國相互保健社 振替京城一八九二二番

北靑邑內 共興株式會社

北靑邑內 殖銀支店長 朴奉魯

新北靑 鐵道醫院長 洪秀峰

北靑邑內 李陽洙

咸鏡線北靑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代行營業所

北靑邑南門通 青新食堂 李紅[illegible]

北靑邑市場通 京城金銀堂 任德信

北靑邑中央通 歐米式洋服店 劉泉鉉

北靑邑內 崔浚永商店

北靑邑內 龜泉屋洋服店

北靑邑內 德城屋洋服店

北靑邑內 北鮮洋服店

興上

朱地面長 朱培權

朱地面事務所職員一同

咸興水利組合 興上管理所職員一同

朱伊面職員一同

咸南興上驛前 趙賛弼

咸南興上驛前 韓煥用

咸南興上驛前 森清

咸鏡線興上驛前 許桂鶴

咸南興上驛前 盧鸞奎

咸州郡初等學校職員一同

定平郡高山面興峯里 韓弘成

咸南興上驛前 尹鏞鎰

咸南興上驛前 李昇赫

朱地面頂水里 金炳璿

徐甲豊

海東釀酒所

宋春燁

私立明德學校長 李述奎

地境購買組合

川西面高明里 崔在[illegible]

謹賀新年

馬山

馬山萬町 土木建築業 安相道

馬山俵町 李秉祿

馬山府酒造組合 玉昌酒造場

月影酒造場

洛東酒造場

馬山元町 金錫汝洄漕店

馬山府午東洞 南鮮券番 金仙桃 金菊姬 金水連 金仙姬

昌原郡 內西面職員一同 鎭北面職員一同 鎭田面職員一同 北面職員一同 東面職員一同 上南面職員一同 熊南面職員一同

馬山府萬町通 水山醫院 崔根金

朝鮮日報馬山支局一同

馬山府萬町 三山貯蓄組合

合山貯蓄組合

第二東一貯蓄組合

馬山府元町 商友貯蓄組合

馬山府北馬山驛前 米穀商 金尙玉

馬山元町 米穀商 李基一

馬山元町 金喆祚

馬山元町 米穀商 金長洙

馬山壽町 米穀商 朴圭誠

馬山元町 馬山金融組合 瀧本彥造

馬山標里 徐丙武

馬山壽町 米穀商 朴順明

馬山俵町 物產委託業主 信正商店

馬山元町 喪中久鑑 金昌準

馬山俵町通 酒類食料 文德贊商店

馬山萬町 酒類食料 根信商店

馬山萬町通 馬統運送組 黃長午

馬山石町通 文房書籍商 江南商店

馬山俵町 府議員 金鍾順

馬山石町 酒類食料 金辰泰

馬山元町 南璣祜

馬山萬町通 高麗婦人商店 金炳鶴

馬山上南洞 崔仁守

馬山元町 振興商會

馬山萬町 土地測量社 徐[illegible]勳

馬山元町 米穀 金斗彥

馬山府 昌原郡 馬山署

馬山萬町通 浪花商店

馬山萬町通 金洙明

馬山俵町 李祐植

馬山元町 澤山兄弟商會 上杉彥太郎

馬山元町 命福商店 金命福

馬山俵町 李鵬國

馬山府通町 辯護士 徐基弘

馬山府新町 府議員 具麟旭

昌原北面 面長 金鍊圭

馬山元町 金漢榮

馬山府通町 司法代書 金會守

馬山府石町 司法代書 金根守

馬山府元町 元東貿易株式會社

馬山元町 玉山商店 羅文玉

馬山元町 布木商 千鶴根

昌源郡酒造組合 鎭東酒造場 姜泰昊 上南酒造場 黃正模 東菊酒造場 金潤式 熊南酒造場 洪希守 聖住寺酒造場 曹喜誠 化川酒造場 曹成鶴 檜山酒造場 車點用

馬山本町二丁目 昭和タクシ

馬山元町 布木商 安長浩

馬山萬町通 和信木工所 河桂柱

馬山萬町 鶴山醫院 李順福

馬山俵町通 朝鮮料理 漢陽館

馬山萬町 喪中久鑑 三省醫院

馬山石町 徐光遠

馬山精米業組 馬山精米所 慶南精米所 丸萬精米所 昌鮮精米所 安好精米所

昌原大山面 大山產業組合

昌原郡大山面 下山水利組合 金永守

咸安郡 漆北面職員一同

咸安郡漆北面 具周見

咸安郡漆北面 安再鳳

咸安郡漆北面 安鍾允

咸安郡漆北面 安基俊

昌原郡昌原邑 朴萬善

昌原郡昌原邑 金文淑

昌原邑 金基燮

昌原邑 布木商 李致永

昌原邑 金基鎬

昌原邑 金基汎

昌原邑 宋鍾律

昌原上南面 南面金組理事 孔五源

昌原邑上南面 安承祚

昌原邑上南面 上南普校訓導 李廷泰

義州

義州郡廳

平北義州邑內 義州警察署員一同

義州邑南門外 得友入齒院 文得友

平北義州邑內 朝鮮燒酎製造販賣及精米業 鴨江酒造社 振替京城一一五五九番

平北義州邑 松長水利組合

義州邑事務所 邑長 申彥浩

義州公立普通學校 校長 高田武夫

平北義州邑弘西洞 金炳洙

平北義州邑內 天道教義州郡宗理院

平北義州邑內 農村消費品及生產品共同購入販賣 義州農民共生組合

平北義州邑內 金柄華

義州邑內市場通 朝鮮料理 萬盛館 黃成國

平北六山市 蘭堂商店 金志國

平北義州邑內 義州郡農民社

義州郡農會

義州邑南門內 中華料理 日本料理 同英館食堂 主 陳相

義州公立農業學校 藤井猛

義州邑內 思公生

義州金融組合 理事 吉本五六

新義州府外中之島 碧潼商會 李貞夏 電話五四二番

平北義州邑南門外 三省印刷社 李寅用 電話三五番 振替京城一七九一六番

義州邑市場通 朝鮮料理 大盛館 主 盧貞元

義州郡 古寧面事務所職員一同

平北永山市 公醫 金應植

平北市山市 綢緞布木雜貨商 新興商店 主任 吳中甲

平北義州南門洞 天道教青年黨 義州部

義州郵便局 局長 島岡熊次

殖產銀行義州支店 中村道一

新義州地方法院出張所 高橋高夫

義州邑南門外 小兒婦人及內外科 濟衆醫院 醫師 朴承大

平北義州邑 李禧曾 電話二四番

義州邑弘西洞 李雲坡

金化

(原) 合資會社 金化合同運輸社 代表社員 金基玉

金化警察署長 栢原百男

金化郡廳職員一同

金化驛前 金化釀造場 主 金榮駒 電話八番

金化郡金化面生昌里 李運植

金化驛前 穀物肥料 化昌商店 秦來源

金化驛前 金化鹽業組合 組合長 金基玉

金化面職員一同

金化金融組合理事 上野博義

金化驛前 東一銀行支店職員一同

金化驛前 公醫 嚴大燮

金化邑 司法代書人 金顯慶

金化邑 司法代書人 金鼎鎭

金化邑內 司法代書人 嚴雲燮

金化邑 高野金藏

金化邑內 [illegible] 李永俊 電話四三番

金化水利組合職員一同

求禮

求禮大江組

求禮公立尋常高等小學校 求禮郡內各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求禮郡馬山面冷泉里 金鍾哲

求禮郡廳職員一同

求禮警察署職員一同

光義面事務所職員一同

朴炳現

土旨面事務所職員一同

求禮泉隱寺

孔文詩

山洞面協議員 李璋雨

山洞協議員 朴寅和

咸宇鉉

房文有志 朴範緒

山洞面職友會

山洞面協議員 韓福洙

求禮華嚴寺

山洞面協議員 尹周鉉

龍方面職員一同

求禮公醫 金安植

金容弼

馬山面長 李炳稙

求禮面長 姜漢燮

李根活

寧遠

寧遠郡溫和面 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寧遠農民共生組合德化支部 林士弼 俞鎭翼

寧遠郡寧遠面 面長 韓泰鵬

寧遠郡 寧遠面職員一同

寧遠營林署 藤澤金平

寧遠郡溫和面 面長 孔大衡

寧遠郡溫和面 朴文昌

寧遠郡德化面 面長 李兢龍

寧遠郡德化面 力武好郎

寧遠郡溫和面 坂本和作